목 차

발간사(성북문화원 원장) 2
축사 4

특집 1 | 성북의 여성
수향, 성북에 돌아오다 7
박남옥과 성북구의 예술인들 13
시대의 억압을 벗어난 여성운동가, 김일엽 17
성북구엔 어떤 여성운동가가 살았을까? 20

성북 인물 초대석
음악으로 기록될 성북의 시대정신 - 한민석 교수를 만나다 23
예술의 사회참여를 말하다 - 신영성 · 하민수 작가를 만나다 32

특집2 | 성북의 산업
연탄 한 장의 추억 45
한국 라면의 고향, 성북구 하월곡동 49

성북공간
목재파쇄장에서 오동숲속도서관으로 53
창작연극의 올림터가 된 성북1가압장 58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대표 마라토너, 서윤복 63
형평사 운동 100주년과 서광훈 68

2023년 성북문화원의 행사
2023 주민기록단 73
제2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 제3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77
2023 성북동문화재야행 '문학과 예술로 이어지는 성북의 밤' 82
제6회 성북학 학술회의 '경계를 넘어 : 지역학의 교류와 성장'을 돌아보며 89
2023 일반회원 역사문화탐방 '정조의 소망이 담긴 도시, 수원' 97

2023년 성북문화원 소식 102
2023년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133
2023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136

발간사

『성북문화』 11호를 내며

어느덧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계묘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언제나 성북문화원을 향해 많은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는 저에게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성북문화원의 제3대 조태권 원장님의 뒤를 이어 제가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4년간 성북문화원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조태권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성북문화원장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북문화원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과 문화를 되찾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회원 여러분의 문화 향유 기회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문화강좌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함께 그동안 마스크에 감추어져 있던 시민 여러분의 미소를 직접 볼 수 있어 무척 기뻤습니다.

다양한 야외 행사와 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성북구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이육사 시인의 탄생 119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입적 79주기를 추모하는 다례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심우장에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 뮤지컬 심우도 심우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정말 발 디딜 곳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해주셔서 몹시 뿌듯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2023 제14회 성북천 깃발전 '팔랑거리는 상상전'에서는 '100년 뒤, 내가 생각하는 성북구'를 주제로 아이들이 저마다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미래의 성북구를 표현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상상들이 도화지에 담겨 있어, 이대로 실현되면 더할 나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성북을 기록하는 일과 성북학 연구,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어느덧 6년째를 맞이한 성북구 주민기록단 양성교육을 올해 상·하반기에도 꾸준히 진행하여 우리 주민 여러분이 성북구 지역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2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서랍 속 학교 이야기'를 개최하여 사진, 영상, 일기, 졸업앨범, 교복 등 학창 시절 관련 추억을 꺼내어 이것이 민간기록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정된 민간기록물 등은 마을기록 전시회에서 공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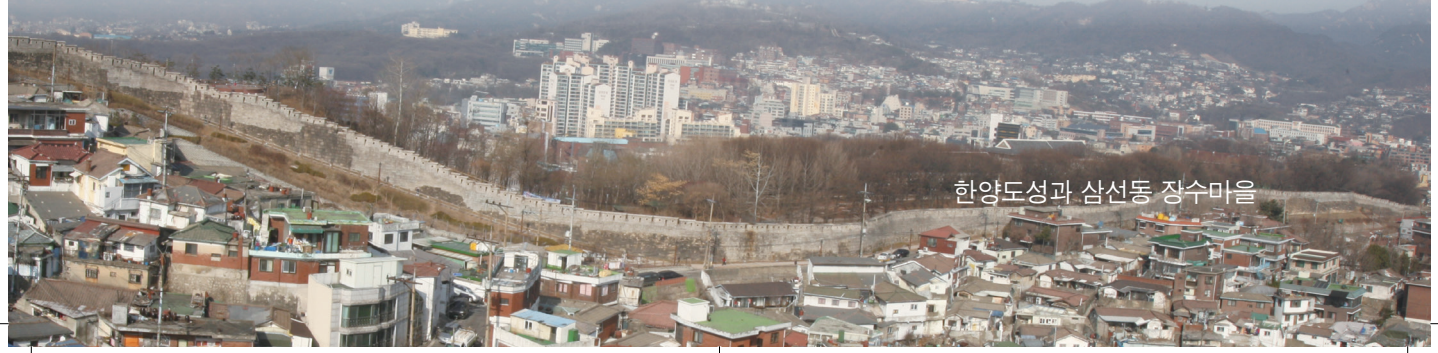
제6회 성북학 학술회의 '경계를 넘어: 지역학의 교류와 성장'도 개최하였습니다. 성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지역학 연구·활용 사례를 확인하여 장차 성북학의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학을 활용한 시민교양강좌도 개최하였습니다. 성북구 주민 아카데미 '영화·드라마 속 역사 이야기'와 프리미엄 인문학 '책으로 읽는 역사'는 우리 시민들의 교양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의 역사와 지역에 대해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성북문화원의 대표 행사인 2023 성북동 문화재 야행 '문학과 예술로 이어지는 성북의 밤'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성북동을 찾아 심우장, 선잠단지, 최순우옛집, 이종석별장, 한국순교복자수도회구본원 등 달빛과 함께 어우러진 문화유산을 감상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음악 공연은 시민분들의 귀까지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성북문화원이 할 일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북문화원이 성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창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의 숨은 지역 문화와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일에도 끝없이 매진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이 2023년 한 해 동안 이루어낸 성과는 모두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성북문화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를 이루시어 승천하는 '청룡(靑龍)'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북문화원장 김영일



한양도성과 삼선동 장수마을

축사

『성북문화』 제11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참신한 문화사업과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시는 성북문화원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봄, 성북문화원은 제3대 조태권 원장님께서 이임하시고 제4대 김영일 원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오래도록 문화원을 이끄시며 우리 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신 조태권 원장님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김영일 신임 원장님의 취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올해에도 승승장구하는 성북문화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북문화』는 문화원의 한 해 사업 성과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들을 접할 수 있는 유익한 매체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원의 지난 발자취는 물론 과거와 현재가 성북이라는 공간에서 공명하며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지를 읽고 우리 지역에 관한 새 지식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성북구는 모든 구민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에서 지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문화도시 성북의 미래를 성북문화원과 함께 그려보고 싶습니다.

갑진년 새해, 성북문화원 관계자분들과 성북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문화 11호.indb 4 2024-02-18 오전 10:05:44

새해의 시작을 함께할『성북문화』제11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성북구는 뿌리 깊은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자산,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구민들이 어울려 사는 도시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성북에서 성북문화원은 지역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의 창조적인 활동은 어느새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어 많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성북문화』를 통해 올해 성북문화원의 다양한 문화사업과 연구 활동들이 지역사의 기록이자 앞으로 이루어질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북구의회는 지역의 풍부한 역사를 기록하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즐거움을 제공하는 성북문화원의 활동을 적극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문화원과 구의회가 함께하면서 구민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전환의 시대, 우리 성북구가 더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하며,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의 미래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의회 의장 오중균

성북문화 11호.indb 5 2024-02-18 오전 10:0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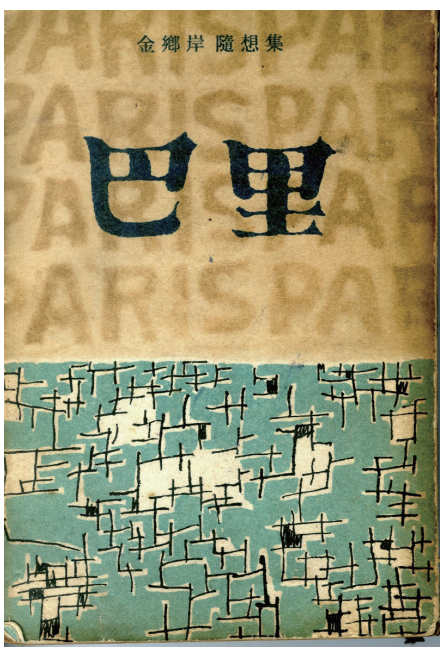
성북문화 11호.indb 6 2024-02-18 오전 10:05:44

수향※ 성북에 돌아오다

글 : 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이들은 전쟁의 포화를 피해 남쪽을 향해, 더 남쪽을 향해 피난길에 올랐다. 이들 중에는 자신들이 살던 성북동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표현하던 수화 김환기, 그리고 김향안 부부도 있었다.

> 참 먼 옛날 같습니다. 뒷산에 대포알이 쿵쿵 쏟아지고 주춧돌까지 찌르르 울려 왔습니다. … 나는 문을 닫고 누워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가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고 일제히 내 얼굴만 보았습니다. 나는 그만 가슴이 막혔습니다. 문을 닫고 그 발로 문간에 나섰습니다. 동네를 살펴보니 텅 비었고 집집마다 문은 꼭꼭 잠기었습니다. 짹 소리 안 나는 산협에 연방 쿵 꾸르릉-산울림은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휘휘 부는 산협에 서서 먼 산과 가까운 산봉우리를 바라보니 서럽기만 했습니다. 참 먼 옛날만 같습니다. 3년 전 정월 초사흘, 우리는 한강을 넘었던 것입니다.
>
> — 김환기, 2016,「의욕의 서울」,『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환기미술관, 63-64쪽(1953년 8월).



1962년 발표한 김향안 산문집『파리(巴里)』. 김환기가 표지 및 삽화를 그렸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환기·김향안 부부는 정월 초사흘, 즉 1.4후퇴때 성북동을 떠났다. 그리고 부산에서 약 3년간의 피난 생활을 하였다. 전쟁을 피해 갑작스레 이주한 타지에서의 피난 생활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 시기 성북동을 향한 그리움을 수필로 표현하곤 하였다.

※수화 김환기와 김향안은 1944년 결혼하였다. 이후 김용준이 살던 '노시산방'을 이어받아 거주하였는데, 이 집의 당호를 김환기의 호 '수화'와 김향안의 '향안'에서 한 글자씩 따 '수향산방'이라 지었다. '수향'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북문화 11호.indb 7 2024-02-18 오전 10:05:45



김환기·김향안 부부가 살았던 두번째 성북동 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 ⓒ성북마을아카이브

> 부산살이 3년에 밤마다 나는 꿈을 꾸었다.
> 내 살던 산장 뜨락에 산삼(山蔘)이 나고 더덕 순이 돋고…….
> 이 꿈도 필시 쑥대밭이 된 서울 소식이 너무 귀에 익었던 까닭일 게다.
> — 김환기, 「여름 2제(題)-꽃가게」, 앞의 책, 49쪽(1952년 8월).

> 나도 엑스트라의 하나로 3년을 줄곧 부산 신세를 졌습니다. 아, 그러나 자나깨나 서울 생각이었고 갈수록 그리운 건 서울이었습니다.
> — 김환기, 「의욕의 서울」, 앞의 책, 64쪽(1953년 8월).

밤마다 성북동 수향산방의 모습을 꿈꾸고, 자나깨나 그리워하였던 것은 아무래도 힘들고 열악한 피난 생활과 주변 환경이 자아낸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부부의 부산 피난 생활의 힘겨움과 열악함은 그들의 수필에 잘 드러나 있다.

> 청계천 아닌 시궁창 도랑을 끼고 얼마를 내려오다 머무르니 불시에 사방에서 퀴퀴한 냄새가 끼친다. 무더기 무더기로 쌓인 쓰레기에서는 금시에라도 발효될 듯 부걱부걱하는 기운이 감돌고 도랑물에서는 벌써 증기가 서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길이나 하늘이 내려앉은 듯 답답한 대기 속에서 그만 가슴이 콱 막혀 버리려고 하였다. … 이렇듯 아름다운 서울의 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산

성북문화 11호.indb 8 2024-02-18 오전 10:05:46

의 봄은 그저 노곤하고 가슴 답답하고 피로하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갑자기 봄이 왔다가도 내일 느닷없이 바닷바람이 휘몰아 올지도 모르는 이 고장 천후이다.

— 김향안, 2016, 「봄」, 『월하(月下)의 마음』, 환기미술관, 35-37쪽(1953년).

피난 온 이후 내 집에서 제법 소반을 받고 앉기란 처음이 아니었던가. 몇 해를 두고 우리는 방바닥이 아니면 판대기, 기껏해야 궤짝 위에다 양재기 나부랭이를 늘어놓고 밥을 먹어 왔다.

— 김향안, 「소반」, 앞의 책, 43쪽(1953년 여름).

불현듯 부산 생활이 왁자지껄 머리에 떠오른다. 방 때문에 그렇게도 불쾌했던 일들 … 두 번 다시 그러한 부산 생활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 김향안, 「고향길」, 앞의 책, 46-48쪽(1953년 6월).

우리는 이러한 거리를 두고 고등어 비린내가 나는 부산의 진창거리를 얼마나 헤매었던가.
비바람, 먼지, 다다미, 다쿠앙, 멸치, 도떼기시장 — 생각만 해도 신물이 난다.
부산엔 펑펑 솟는 우물에도 뚜껑을 닫고 쇠를 채웠다.

— 김환기,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61쪽(1953년 6월).



김환기 · 김향안 부부가 성북동 생활을 시작한 곳인 수향산방이 있었던 자리 ©성북마을아카이브

성북문화 11호.indb 9 2024-02-18 오전 10:05:47

더하여 김환기는 부산에서의 생활을 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방 신세만 졌던 부산살이'라거나 '실로 부산은 술과 욕을 배운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환기가 허송세월을 한 것만은 아니었다. 부산에서 생활하는 동안 해군 소속 종군화가의 신분으로 활동하며 많은 예술인들과 함께 작품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의 피난 생활을 이어가던 1953년 6월, 부부는 약 3년 간의 피난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서울로 향하기로 마음 먹는다.

> 얼마 후 우리도 짐을 꾸렸다. 부산을 떠나 환도하기로 했다. 서울가면 — 하여튼 서울만 가면 살 아날 것 같은 그러한 서울에 가는 것이다. … 우리 가족도 보따리를 둘러메고 저렇게 부산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
> — 김환기, 「곡마단」, 앞의 책, 52쪽(1953년 6월).

김향안은 서울로, 그리워하던 성북동으로 돌아오는 여정과 점점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수필을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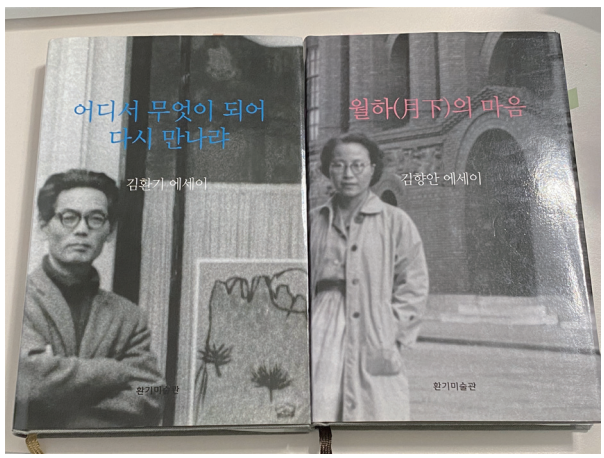
> 차에 오르니 창 밖은 딴 세상이다. 3년 동안에 연선(沿線)엔 제법 수목이 무성했다. 수목 사이로 멀리서 보면 꼭 꽃밭처럼 보이는 빨간 흙빛이 아름답다. …
> 하루 낮이면 올 길을 자그마치 3년을 두고 별렀다. 차츰 서울이 가까워지니 가슴이 설렌다. 한 많던 한강이 보이기 시작하니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다리가 파괴되었을뿐 강물과 더불어 주위의 산천은 의구(依舊)하지 않은가.
> 그리던 고향, 비 내리는 서울역에 내려서니 우산을 안 받아도 좋았다. 그냥 내 집에 들어선 듯이 편안해진다.
> 서울에 들어서니 숫제 허허벌판이다. 그 사이 이렇게도 많이 부서졌는지, 서울이 아니라 어디 이국(異國)의 폐허 같다. 설움이 앞선다.
>
> — 김향안, 「고향길」, 앞의 책, 45-48쪽(1953년 6월).

부부는 열차를 타고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김향안은 열차 안에서 마주하게 된 서울의 모습을 보며 여러 상념에 젖기도 하고, 또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편안함을 느끼는 한편, 폐허가 된 서울을 보며 서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후 숙박업소에서 여독을 풀고 다음날 성북동 집으로 향하였다.

> 이튿날 아침, 씻은 듯이 갠 맑은 하늘 아래를 걸어서 아름다운 북악, 삼각(三角)의 연봉을 바라보며 가로수가 우거져 터널을 이룬 돈화문 구름다리 밑을 지나 성북동 산협을 찾았다.
> …
> 길이 넘는 잡초를 헤쳐 돌층대를 올라가서 큰 대문을 연다. … 대문을 들어서니 지붕을 넘는 잡초에 가려 대청도 안방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쑥대밭이다. 우리는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가 돌층

성북문화 11호.indb 10 2024-02-18 오전 10:05:47

대에 걸터앉아 두루 동리를 바라다보며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치울 것인가 생각해 본다.
우리집 대문 여는 소리에 동리분들이 달려나온다. 어찌 그리도 서로들 반가웠으랴.
끝내 집을 버리고 나가지 않았던 분들도 있다. 나는 진정 이런 이들한테 미안했다. 집도 동리도 다 버리고 나갔던 우리들이 무슨 낯으로 집이며 동리를 대할 수 있으랴. 집이 남아 있어준 것만이 고맙고 동리를 지켜 준 분들이 고마울 뿐이다.
— 김향안, 앞의 글, 49쪽(1953년 6월).



김환기와 김향안 수필집 표지 사진

부부가 성북동 집에 도착해서 목도한 것은 전쟁과 피난으로 엉망이 된 성북동 집이었다.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할까 새로운 고민에 빠져있던 중, 성북동에서 함께 살던 이웃들이 찾아와 반겨주었다. 성북동으로 돌아온 직후의 생활은 김환기의 수필에 얼핏 드러나 있다.

부산살이 3년에 나는 이렇게 멍하니 보내는 무위의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 실속 없이 바쁘기만 했던 것이다. … 서울 우리 집 산방에 돌아와서 한 달이 가깝도록 그저 좋기만 하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나 그렇게 서두르고 싶지 않다.
— 김환기, 「서울에 돌아와서」, 앞의 책, 57쪽(1953년 6월).

집구석이 온통 잡초에 파묻혀서 그대로 도깨비집이다. 우물에는 개구리가 살고 하늘에는 왕거미줄이 번쩍인다. 함부로 발을 잘못 디뎌 놨다가는 구렁이 대가리를 밟을 것만 같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우고 살아야 할지 정신이 없다. … 풀을 뜯고 먼지를 털고 지금 나는 개척자가 된 것이다. 문 안에 들어가 괭이, 삽, 호미, 낫 — 연장을 마련해 와야 한다. … 난 지금 분명 서울에 돌아왔다. 하루에 너댓 번 냉수욕을 한다. 밤이면 월광과 소쩍새 노래를 들으며, 아직도 서울에 돌아오지 못하고 부산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대청에 누워서 잠들곤 한다.
— 김환기,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앞의 책, 59-61쪽(1953년 6월).

이렇게 김환기·김향안 부부는 성북동에 돌아와 잠시 쉬기도 하고, 또 엉망이 되어버린 집과 앞마당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종종 「산방기(山房記)」(김환기), 「산(山)에 사는 맛」(김향안) 등의 수필을 통해 성북동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기도 하고, 성북동에서 사는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성북문화 11호.indb 11 2024-02-18 오전 10:05:48

비록 김환기·김향안 부부가 태어난 곳이 성북동 집은 아니었지만 김향안이 피난을 떠난 부산에서 성북으로 돌아오는 길을 '고향길'이라 칭한 것처럼, 그들은 어느덧 성북동을 진정한 고향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부부가 피난을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고향집'은 수향산방(성북동 274-1)에 거주한 이후 자리잡은 두 번째 성북동집, 성북동 32-1번지 부근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옛 모습이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수향', 즉 김환기·김향안 부부가 전쟁을 피해 서울을 떠난 이후부터 3년간의 피난 생활을 마친 뒤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를 기록한 수필을 통해 당시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의 작품을 각각 살펴보아도 그러하였지만, 함께 모아두고 보니 피난 생활의 고달픔과 성북동을 향한 그리움이 더 깊게 느껴지는 듯 하다.

참고 문헌 |
김향안, 『월하(月下)의 마음』, 환기미술관, 2016.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환기미술관, 2016.
박수진 외 4인,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2015, 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 https://archive.sb.go.kr

성북문화 11호.indb 12 2024-02-18 오전 10:05:48

박남옥과 성북구의 예술인들

글 : 김나현(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을 1954년 6월 말, 박남옥은 아이가 출생한 지 보름 만에 영화 촬영에 나섰다. 아이를 등에 업고 감독이자 제작자, 배급자로서 서울, 대구, 부산, 진해 등을 오가며 박남옥은 영화 「미망인」(1955)을 완성한다.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인 박남옥이 「미망인」을 만들기 전, 직접 거주하며 영화 일을 배웠던 곳이 바로 성북구 돈암동이다. 박남옥이 노년에 쓴 자서전인 『박남옥 : 한국 첫 여성 영화감독』을 바탕으로 박남옥의 자취를 따라가며 영화를 향한 꿈을 키워갔던 박남옥과 성북구의 예술인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1923년 경상북도 하양(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에서 태어난 박남옥은 어릴 적부터 영화, 미술, 무용 등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13살 때 일본영화잡지인 『신영화』에서 배우 김신재의 사진을 본 후 그의 열렬한 팬이 되면서 영화에 더욱 깊이 빠져든다. 박남옥은 경북여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에 이화여전 가정과에 입학하는데, 학교에 점차 마음이 떠나 어느 날 밤 기숙사를 뛰쳐나온다. 이후 박남옥은 현초 이유태 선생에게 미술을 배우기 시작한다. 한편 전쟁 상황이 심각해졌고 이유태 선생이 징용을 피하기 위해 탄광으로 피신하면서 박남옥의 미술 공부는 중단된다. 박남옥은 친구 남편의 소개로 조선영화사 광희동 촬영소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내려오라는 부모의 성화에 대구로 내려가 대구일일신문 문화부에서 잠시 일한다. 해방 이후인 1946년 3월, 박남옥은 서울 광희동 촬영소로 돌아간다. 이때 최인규 감독의 영화 「자유만세」(1946)의 스태프들과 일하게 되는데, 「자유만세」의 녹음이 있는 날에는 영화 관계자들과 돈암동에서 만나 함께 출근하게 된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딸을 업고 있는 박남옥 감독 ⓒ한국영상자료원

성북문화 11호.indb 13 2024-02-18 오전 10:05:49

"그다음부터는 「자유만세」 녹음이 있는 날마다 돈암동에서 사이드카(물건을 싣는 운반차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다. 촬영기사 한형모가 모는 이 사이드카는 극중 일본 형사(독은기 분)가 타는 차다. 차 안에는 최인규 감독, 황려희, 나, 이렇게 타고 있었다."

—박남옥, 2017, 『박남옥 : 한국 첫 여성 영화감독』, 마음산책(이하 제목, 출판사명 생략), 74쪽.

"1946년 12월, 눈이 많이 내린 세모歲暮였다. 「자유만세」의 완성이 가까워지자 최인규 감독의 돈암동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다. 작가 박계주, 최영수, 최정근, 음악 평론가 박용구, 홍은원, 황려희, 전창근, 유계선, 나, 한형모 내외, 이른바 호화 멤버가 모인 파티였고 밤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76쪽.



1946년 최인규 감독 집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 김일해 배우(1열 좌1), 박남옥 감독(1열 좌2), 황려희 배우(1열 좌3), 박계주 작가(2열 좌2)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국영상자료원

「자유만세」의 관계자들이 돈암동에서 모여 출근한 이유는, 당대 많은 영화인들이 돈암동에 거주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대표적으로 1946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최했다던 「자유만세」의 감독 최인규와 배우 김신재 부부가 돈암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최인규는 「수업료」(1940), 「집없는 천사」(1941), 「독립전야」(1948) 등 1940년대에 다수의 영화를 만들고 흥행시킨 감독이었다. 김신재는 18살 때부터 영화 배우로 활동하여 남편 최인규 감독의 영화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1980)로 대종상영화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박남옥이 열렬히 사모한 배우이기도 한 김신재는 6·25전쟁으로 최인규가 납북된 이후에도 돈암동에 거주하며 박남옥과 친분을 이어갔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되었던 전창근, 유계선 또한 유명했던 영화계 부부로 돈암동에 거주했다. 전창근은 윤백남프로덕션에서 배우로 영화 일을 시작했고, 1960년대 말까지 감독이자 각본가, 배우로서 영화계의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다. 유계선은 일제강점기에 극단 배우로 활동하다가 전창근의 「복지만리」(1941)를 통해 영화계에 데뷔하였고 1980년대까지 연극과 영화 활동을 활발히 해나갔다. 파티에 참석한 인물로 작가 박계주도 언급되는데, 박계주도 돈암동에 살았던 예술인이다. 박계주는 1929년 『간도일보』 신춘문예에서 「적빈赤貧」으로 등단하여, 일제강점기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기도 한 「순애보」(1938)와 함께 「죄 없는 죄인」(1947), 「진리의 밤」(1957) 등 다수의 소설을 썼고 이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이렇듯 당시 돈암동 일대에는 영화인과 예술인들이 상당수 거주하

성북문화 11호.indb 14 2024-02-18 오전 10:05:49

고 있었고, 박남옥 또한 돈암동의 한옥집에서 하숙하기 시작하면서 돈암동 예술인의 일원이 된다.

"그 시절 나는 김신재의 집 근처에 살면 혹시 자주 볼 수 있을까 하여 돈암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돈암동에는 영화인, 연극인, 문인 등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독은기, 문예봉, 아니면 유명한 작가나 영화 연극 평론가 등 낯익은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 109-110쪽.

1950년 6월 24일 박남옥은 대구로 내려간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다음 날인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동생들을 찾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박남옥은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돈암동을 돌아다녔던 지난날을 회상한다. 박남옥은 영화의 꿈을 함께 키워나갔던 이들이 사라진 거리를 보며 쓸쓸함을 느끼지만, 돈암동에서 만난 인연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신재 씨에게 또 만나자며 약속하고 그 집에서 나와 옛 하숙집을 둘러본 후 빵집 맞은편에 있던 돈암동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슬펐다. 전쟁이 나기 전인 불과 몇 년 전에 나는 영화에 미쳐 바로 이 돈암동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쫓아다녔다. 그 활기차던 거리가 이제는 슬프고 처량해 보였다."

— 113쪽.

전쟁 상황이 전반적으로 수습된 후, 박남옥은 전창근 등의 영화 동료들과 함께 영화를 만든다. 아이를 낳은 지 보름 만이었던 1954년 6월 말, 남편이자 극작가인 이보라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자, 친언니가 건네준 380만원을 자금으로 영화 「미망인」(1955) 촬영을 시작한다. 박남옥은 종로구 관훈동 184번지에 지은 판잣집 세트장을 시작으로 부산, 진주, 대구 등을 다니며 영화 촬영을 진행했다. 11월 말 편집을 마치고 후시 녹음을 위해 녹음실을 찾아갔을 때는 계속 거절당하다가 이듬해 1월에 "연초부터 16mm에다 여자 작품을 녹음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핑계에 불과한 모욕을 참아가며 녹음 작업을 끝낸 후에도 박남옥은 배급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늙으면 "빨리 죽고 싶다. 집안사람들 폐 끼치지 않게……."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거짓말이다. 나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붉은악마들이 세계 축구 4강에 가는 것을 보아서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다. 하나 있는 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지켜보고 싶고, 우리나라 여성 영화인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세계로 진출하는 것도 보고 싶다."

— 267쪽.

성북문화 11호.indb 15 2024-02-18 오전 10:05:49



박남옥 감독(2열 좌1), 홍은원 감독(2열 좌2), 김신재 배우(1열 좌2)가 함께 있는 사진. ⓒ한국영상자료원

전쟁 직후로 자본과 물자가 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도 박남옥은 여러 역할을 도맡아가며 영화 「미망인」을 완성했다. 「미망인」은 홍은원, 최은희, 황혜미 등 후대 여성 감독들이 영화 연출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선례가 되었다. 박남옥은 「미망인」을 첫 작품이자 유일한 작품으로 남긴 후 영화계를 떠났지만, 홍은원, 김신재 등의 여성 영화인들과 계속 교류하며 영화에 대한 애정을 이어나갔다. 노년에는 미국에서 지내면서도 한국의 여성 영화인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기를 꿈꿨다. 박남옥이 미래의 사람들을 상상하며 영화를 향한 소중한 마음을 이어나간 것처럼, 예술을 향한 열렬한 애정을 품고 과거 성북구의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박남옥과 성북구 예술인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박남옥, 『박남옥 : 한국 첫 여성 영화감독』, 마음산책, 2017.
「미망인 여감독·박남옥작」, 『동아일보』, 1955. 02.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영상자료원, https://www.kmdb.or.kr/main

성북문화 11호.indb 16 2024-02-18 오전 10:05:49

시대의 억압을 벗어난 여성운동가
김 일 엽

글 : 오진아(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김일엽(본명 김원주)은 나혜석, 김명순, 정칠성 등과 함께 1920년대에 활동한 대표적 신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엽은 1896년 평안남도에서 목사인 아버지 김용겸과 어머니 이마대 사이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의 밑으로 태어난 동생들이 모두 요절하자, 그의 어머니는 하나 남은 딸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다. 그 덕에 김일엽은 여성이 학교에 다니는 일이 드물었던 시절 소학교를 다니며 근대식 교육을 받았을 수 있었고, 양친이 돌아가신 뒤에도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이화전문을 졸업하고, 1차 일본 유학도 다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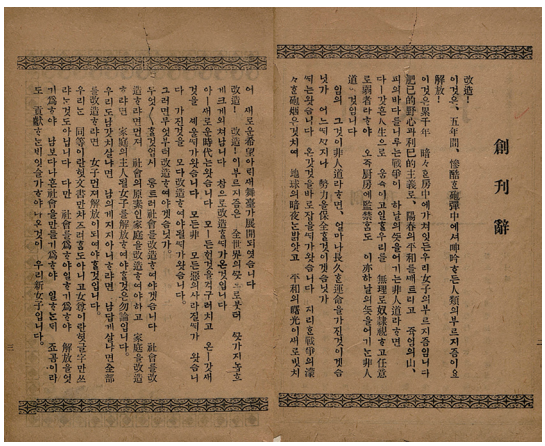


김일엽. ©국회도서관

> 어머니는 생존시에 나에게 부도(婦道)와 여직(女職)에 대하여는 도무지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이다. 어머니는 나를 여자 구실은 안 시키고, 어떤 표준도 없이 그저 남의 집 열 아들 부럽지 않게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여성 아닌 남자 대장부를 만들려는 것이었나이다. 외할머니나 이모들이 그런 어머니를 보고, 계집애를 가르치지 않고 뛰어다니게만 두고, 시집보낼 옷가지 하나 장만 아니 하면 어찌할 거냐고 하면, 어머니는 "당신네들처럼 바리바리 싣고 가서 종노릇만 해야 하오?"하고 핀잔해 버리었나이다.
>
> — 김일엽, 2002, 『청춘을 불사르고』, 김영사, 28쪽

이노익과 결혼 후 남편의 지원을 받고 김일엽이 일본 유학을 다녀온 그는 귀국하자마자 나혜석, 박인덕, 김활란 등과 '청탑회(靑塔會)'를 조직하고, 1920년 2월 『신여자』라는 여성 잡지를 창간한다. 잡지의 편집 겸 발행인은 빌링스 부인(Mrs. Billings)이었지만 실제 편집은 주간인 김일엽이 하였다. 김일엽은 『신여자』의 창간사를 비롯한 다양한 글을 통해 여성 해방, 사회 참여 등을 촉구하며, 성별의 제한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꿨다.

성북문화 11호.indb 17 2024-02-18 오전 10:05:49



創刊辭

『신여자』 창간사. ©국립중앙도서관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사회의 원소인 가정을 개조해야 하고 가정을 개조하려면 가정의 주인 될 여자를 해방하여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도 남같이 살려면, 남에게 지지 아니하려면, 남답게 살려면, 전부를 개조하려면 여자 먼저 해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등이란 헛문서만 찾으려 함도 아니고 여존(女尊)이란 헛글자만 쓰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회를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해방을 얻기 위하여, 남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공헌하는 바 있을까 하여 나온 것이 우리 『신여자』입니다.

— 김일엽, 1920, 「창간사」, 『신여자』 창간호

우리 신여자는 이러한 자각 밑에서 우리 조선 여자 사회에 고래로 행하여 내려오던 모든 인습적 도덕을 타파하고 합리적 새 도덕으로 남녀의 성별에 제한되는 일 없이 평등의 자유, 평등의 권리, 평등의 의무, 평등의 노작(勞作), 평등의 향락 중에서 자기발전을 수행하여 최선한 생활을 영위코자 한다.

— 김일엽, 1920, 「우리 신여자의 요구와 주장」, 『신여자』 2호

한국 최초의 여성주의 잡지 『신여자』는 총독부가 '발간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4호를 끝으로 폐간되었지만 여성운동과 여성의 사회의식을 북돋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잡지가 폐간된 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김일엽은 남편 이노익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오다 세이죠, 노월 임장화 등과 자유로운 연애를 한다. 이러한 행보에 비판이 일자 김일엽은 자신의 연애관에 이렇게 밝힌다.

재래의 정조관으로 말하면 정조를 물질시하여 과거를 가진 여자의 사람은 신선미가 없는 진부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한 번 이라도 성적 관계가 있었다 하면 그 여자는 벌써 정조를 더럽힌 저린 여자라 하였습니다. 그의 정조란 마치 어떤 보옥으로 만든 그릇이 깨어져서 못쓰게 되는 것 같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조란 결코 그러한 고정체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동안에만 정조가 있습니다. 만일 애인에게 대한 사랑이 소멸된다고 가정하면 정조에 대한 의무도 소멸될 것입니다.

— 김일엽, 「나의 정조관」, 『조선일보』(1927.01.08.)

그리고 이즈음 『여시(如是)』라는 잡지사에 왕래하다가 근처에 있던 『불교』지의 사원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권상로에게 한문을 수학하고, 『불교』지의 편집 책임자 백성욱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백성욱이 자기 수행을 위해 떠나고, 1929년 8월 김일엽은 한용운을 따르던 항일 비밀결사

성북문화 11호.indb 18 2024-02-18 오전 10:05:50



김일엽이 『청춘을 불사르고』를 집필했던 성라원(성라암). ⓒ성북마을아카이브



성북동 우정의 공원에 있는 김일엽 벤치. ⓒ성북문화원

체인 만당의 당원 하윤실과 결혼한다. 김일엽은 삼산학교(현 성북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한 하윤실을 도와 삼산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한 대리만족으로는 자신의 이상을 완성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다른 김일엽은 하윤실과 이혼하고 출가하여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된다.

> 나를 완성하자. 그리고 내 자아 가운대서 엄숙한 인생을 창조하자. 나를 자위할 만한 이쁜 이상을 찾고 내 인격을 존중히 해 줄 지식을 닦아라. 그리고 내 감정을 보드럽게 해줄 꽃다운 정서를 기르자.
> — 김일엽, 「一切의 世俗을 斷하고」, 『삼천리』 6권 11호(1934. 11)

그렇게 속세와 인연을 끊고, 수덕사에서 수도생활을 하던 김일엽이 말년에 성북동의 성라암(성북구 성북로31길 27)을 오가며 『청춘을 불사르고』를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자, 세간의 이목을 받기도 했다. 어떤 이는 김일엽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 '사랑에 실패하고 입산한 글 잘 쓰는 비구니'로 그의 삶을 일축했다. 그러나 '여성 교육이 흔치 않았던 시기 평등하게 교육받고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역설한', '동시대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왕성한 집필활동을 한', '여성에게만 정절을 강조하던 시대에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솔직히 드러낸' 이렇게 신여성 김일엽을 수식할 수 있는 문장들은 넘쳐난다. 그가 평범한 시대와 어울리지 못한 특이한 얼룩이 아닌, 부자유한 시대에 자신만의 삶을 개척한 빛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
김일엽, 2002, 『청춘을 불사르고』, 김영사.
김우영, 2008, 「김일엽 문학과 자아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민호, 2006, 「김일엽 문학의 사상적 변모 과정과 불교 선택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회.
서정자, 2013, 「일엽 김원주·『신여자』·그의 사상 다시읽기」, 『나혜석연구』 2, 나혜석학회.
김광식, 2015, 「김일엽 불교의 재인식」, 『불교학보』 7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평인, 「일엽스님 선문집(禪文集) 다시 본다…30주기 맞아 재발간」, 『동아일보』(2001. 01. 29.)

성북문화 11호.indb 19 2024-02-18 오전 10:05:51

성북구엔 어떤 여성독립운동가가 살았을까?

글/그림 김밍자



성북문화 11호.indb 20 2024-02-18 오전 10:05:51



성북문화 11호.indb 21 2024-02-18 오전 10:05:52



성북 인물 초대석 1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음악으로 기록될 성북의 시대정신

한민석 교수를 만나다

한민석 교수는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다. 몇 년 전부터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축제 무대에서 공연할 자리를 만들고, 추천하고 있다. 그의 연구실에서 음악과 교육철학,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해 물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민석 : 제 이름은 한민석이고요. 지금은 동덕여대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음악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무엇인가요?

한민석 : 저희 아버지가 오디오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집에서 많이 듣고 자랐는데 특히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옛날 진공관 앰프에 LP로 들었어요. 자란 시기가 70년대이고 당시 아버지가 들었던 음악은 주로 클래식 음반들이었습니다. 그때 불 다 꺼 놓고 들으셨는데, 그러면 진공관 불빛이 보여서 그것을 보면서 같이 음악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음악을 좋아하시게 된 계기는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언제 음악을 전공하겠다고 마음먹으셨는지요.

한민석 : 저는 음악도 좋아했지만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음악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모두 클래식 음악을 했고 저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때 학교에 재즈밴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 물어봤는데, 재즈밴드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화성이론 같은 이론을 공부를 해야 오디션을 봐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려고 선택(elective) 과목으로 화성학과 'Jazz Ensemble' 같은 음대 과목을 듣고 재즈 밴드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음악 과목을 듣고 공부하다 보니 당시 제가 공부하고 있던 철학과 관련된 공부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악공부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보자' 그리고는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보스턴의 버클리(음대) 쪽으로 한 번 가보라고 전학을 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시골 조용한 주립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다가 대도시에서 복작복작 뮤지션들과 상호작용(interaction)하다 보니까 이걸(음악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겁이 났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고 지금 이걸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보자고 마음먹었는데, 대학원 입학이 안 되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하던 공부를 다시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얼떨결에 놓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음악의 종류가 많은데, 특별히 재즈를 처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한민석 : 고등학교 때는 LP로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하이퍼텍스트로 참조를 통해서 독자가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 하나의 음반을 접하게 되

성북문화 11호.indb 23 2024-02-18 오전 10:05:52



연구실에서 인터뷰 중. 한민석 교수

면 다른 소스를 많이 찾아갈 수 있는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이 좋아요. 하지만 그때는 찾아 들어야 했는데 음악을 듣다보니 계속 재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 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음악을 사서 들어봤더니 여태까지 들었던 팝(pop) 음악이나 록(rock) 음악과는 굉장히 다른 서사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떤 구조와 방식이 있어서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즉흥 연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문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언어라는 것이 기본적인 표현이나 소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음악은 언어와 맞닿아 있는 면도 있지만, 더 추상적이고 근본적인(fundamental)면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아이디어를 음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즈 음악에 매력을 느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하셨지만 미국에서 오랜 기간 공부하셨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한민석 : 미국도 학교 갓 졸업한 젊은 뮤지션이 살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연주하고 곡 쓰고 그런 작업도 해주고 편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실 재즈 음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식 하나의 특정적인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양식은 결국 표현 방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양식 자체가 문화와 사회의 가치관 문

성북문화 11호.indb 24 2024-02-18 오전 10:05:53

화적 가치관이 특정한 형식으로 발현돼서 구현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쉽고 단순하게 양식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뮤지션들이랑 생활하고 작업하다 보니까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문화 가치관에 관한 exercise(연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마치 방언 같았어요 어떤 특정한 지역의 방언이라는 것이 그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내부에서 진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경험과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서로 무언의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문화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시안계 미국인 혹은 한국계 미국인(Asian American, Korean American)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죠. 미국에서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가치관과 문화적인 시각의 변화 다변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음악하기에는 다양성과 기회라는 측면서 더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한민석 : 미국 음악이라는 문화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니, 미국이라는 사회는 자유롭고 다양하지만, 미국이라는 특정한 문화적인 정체성(identity)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양한 요소 외부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저도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다양한 요소 중의 일부인데 문화 정체성과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와 같은 대학에서 가르치시던 교수님 중 UCLA 교수였던 서울대 국악과 출신의 Don Kim(한국 이름 김동석) 교수가 계셨는데, 저보다 더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활동하셨어요. 저는 UCLA와 캘리포니아 여러 대학 등에서 그분과 함께 공연, 세미나 등의 작업 및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식으로서의 재즈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서사적인 측면, 콘텐츠에서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는 독창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차에 계속 연락하고 있던 단국대학교에 김창현 교수가 저에게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없냐고 물어봤는데, 마침 2010년이 제가 좋아하는 시인 이상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The Crow

“어떤 특정한 지역의 방언이라는 것이 그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내부에서 진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경험과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서로 무언의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가치관과 문화적인 시각의 변화 다변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성북문화 11호.indb 25 2024-02-18 오전 10:05:53

Project"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이기도 한데 당시 저는 그의 시를 음악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 시인은 표현주의라든가 초현실주의(surrealism)라든가 하는 20세기 초반으로서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방식을 활자로 실험했던 사람인 사람이었어요. 건축가였으니까요. 활자를 페이지에 나열하면 생기는 어떤 구조적인 매력, 음성(phonetic)이 갖고 있는 소리적인 구조, 이것이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조리적이기도 한 이런 의미들의 재구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시적, 서사적, 구조적 요소를 매개변수(parameter)라고 하는데, 그가 생각했던 다양한 요소들을 매개변수로 생각해서 이것을 음악적으로 재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작업이었죠. 이 이야기를 하니 김창현 교수가 한국에 와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EBS에서 공연도 하고, 다음에는 아르코에서 몇 주간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당시 서강대 아트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Art & Technology institute)가 생겼었는데 (그곳에서) 이런 융합적인 문화예술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선뜻 이야기를 하고 한 발을 들여놓고 1, 2년이 흐르니 동덕여대, 호원대 등에서 강의 요청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놀러 왔다가 주저앉게 된 거예요. 무슨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하셨지만 현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연주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가요?

한민석 : 저는 다 어려워요.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기능적인 정보나 기술을 전수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음악 자체를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는 저한테 약간 기능적인 것보다는 소명의식(vocation)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음악을 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좇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시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언어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리의 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음악이라고 본다면,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과정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과 방식과 의도로 구현되는가? 이 전체적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저는 가르침(teaching)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술가적인 의도와 작업 방식과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소통도 깊이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 구조 안에서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조적이기도 하지만 음악도 못하고 가르침(teaching)도 못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나치게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재직 중인 학교가 성북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공간이라는 것이 한국이라는 공간 미국이라는 공간이 다르듯 삶과 생각, 생활과 분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넘게 성북구에서 활동을 하시고 성북문화원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성북구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관찰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느끼시는 성북구 문화예술 생태계의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성북문화 11호.indb 26 2024-02-18 오전 10:05:53

한민석 :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일찍 한국을 떠나 있다가 어른으로는 처음 한국을 접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특징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시간'이에요. 경제적, 지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곳(성북구)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만들어냈던 많은 예술 작품들이나 생각해냈던 것들, 꿈꾸고 일궈내 왔던 것들이 특히 20세기 초반 한국사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런 작품과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군사독재 등 굉장히 압축적이고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자본주의적으로 볼 때 가치가 없는 유산(legacy)들, 역사들, 흔적들이 상당히 단순한 방식으로 매몰돼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자본주의적으로 가치가 없으면 바로 매몰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매몰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누구의 집터, 누가 살았던 곳은 그 장소로만의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보이지 않는 구조(fabric)라고 그러죠. 문화구조(cultural fabric)가 중요한 지역인데, 자본주의 논리로 매몰되고 그 위에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이 층층이 마치 고고학적인 자료처럼 화석처럼 쌓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성북문화원 식구들이 발굴을 해서 가치와 의미를 되찾고 사회구조라는 맥락에서 성북구라는 곳을 조명을 해보면 위치적인 또는 지역적인 것보다는 이것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화원 식구들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 *"문화 정체성에 대한 나의 이해나 통찰(insight), 또는 그 관점이 생긴다면 그 행위 자체가 지금 21세기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성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 예술적인 행위들은 상당히 미세하고 작위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관이나 기관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을 살려내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괴리가 있었던 거죠. 이제 막 발굴된 역사성과 문화적 구조가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재조명 되니까 거기서 창출되는 의미와 가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적인 행사들이나 움직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100년 전 것과 그대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성북구에 거주하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라는 예술적인 자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문화 정체성에 대한 나의 이해나 통찰(insight), 또는 그 관점이 생긴다면 그 행위 자체가 지금 21세기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

성북문화 11호.indb 27 2024-02-18 오전 10:05:53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끌어안암' 행사 중 한민석 교수팀의 연주

는 사람들의 활동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연장에서 보면,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성북동문화재야행 등 성북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포함한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참여를 독려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민석 : 이전 질문에서 제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성북구 지역의 역사라는 것을 시간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표현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게 그런 'space-time continuum'*같은 개념도 있겠지만 '시대'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시대정신(zeitgeist)이죠. 100년 전에 여기서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시절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표현, 어떤 메시지와 이야기들은 시대정신의 일부거든요. 100년 지난 지금 저희 학생들이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들은 지금 사람들의 시대정신이에요.

---

* 성북구의 물리적, 역사적 맥락을 시공간적 연장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이해해서 해석. 이어지는 시대정신(zeitgeist)에 관한 이야기는 예술의 구현양식 및 내재적 의미를 사회적 맥락에서 조명해 본 것(한민석 교수의 보완 답변)

성북문화 11호.indb 28 2024-02-18 오전 10:05:53

이전 질문에 대한 대답에 비판적인 성격이 있었던 그것들의 단절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100년 전의 시대정신과 지금의 시대정신의 단절은 당연한 것이죠.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것을 특별한 도덕적인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강제화해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랬고 지금 똑같은 이 장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예술적인 행위가 지금 나의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거기에 솔직한 본인들의 자의식이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 양식으로서 음악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으면 저는 그 자체가 또 하나 새로운 100년 이후에 나온 지금의 성북의 실체인 것 같아요.그것들을 학생들이 경험하려면 애들아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나와서 한번 여러분 음악을 해봐라, 사람들과 소통을 해봐라라는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겠지만, 저는 이런 걸 믿는 것 같아요. 믿고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시공간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시간은 흐르지만, 공간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민석 : 작년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서 저희(동덕여대 실용음악과)가 같이 연계해서 참여하고 활동했던 몇 개의 행사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계산해 보니까 연인원 100명 이상이 공연과 연주



2023년 성북동문화재야행에서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공연

성북문화 11호.indb 29 2024-02-18 오전 10:05:56

에 참여했더라고요. 여러 번 참여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저희 학과 학생 정원이 100명 조금 넘거든요. 이게 일상이 돼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역의 문화의 일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모두 창작자(creator)로서의 소비로서 일부로 그 관계(fabric)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거는 학생들의 몫이죠. 여태까지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참여율이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이 자기들과 자기들한테 매력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동덕여대 실용음악과 교수들)는 이런 맥락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죠.

음악과 작품 등이 창조되지만 예술은 물질적인 재화를 만들어내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에서 음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수님 입장에서 또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민석 : 소통이죠.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인간이 본능이고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서로 표현함으로써 보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존재와 존재 사이에 교량이 생깁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 소리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소통할 수 있고 존재와 존재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음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음악이 삶의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소통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해내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음식과 비유를 하면 좋은 음식을 그냥 화학적으로만 분석해 놓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갖고 있는 맛, 또는 표현 방식 이런 것을 '탐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움, 즐거움을 찾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색, 아름다운 구조물 등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 즉 유물론적으로 보면 인간의 생산성은 재화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소비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거(재화 생산) 이후에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요소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수행하는 이 작업들, 이런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한 기반으로 하는 소통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그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음악인으로서의 목표가 있고 또 교육인으로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한민석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이런 쪽으로 음악을 생각한다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인류가 몇 천 년 동안 만들어내 온 이 유산(legacy)죠. 유산으로서의 음악을 한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이 음악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깊이 있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음악이라는 구조에 대한 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올해보다 내년에서 내년에 조금 더 그것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면, 그 과정 자체가 항상 순차적(linear)이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자(타인)인

성북문화 11호.indb 30 2024-02-18 오전 10:05:56

"음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이 음악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깊이 있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음악이라는 구조에 대한 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올해보다 내년에서 내년에 조금 더 그것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면,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목표인 것 같아요.

객체와 주체의 경계가 음악이라는 창의적이고 학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간의 관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음악의 공부 또는 추구 그게 제 목표이고요.

다음에 교육자로서의 목표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떠한 인간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학문적인 예술적인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결국에는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교육자의 역량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 그것이 솔직하게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배우는 학생이 아니면 남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저는 가르친다기보다 내가 배우는 이 과정을 학생들이랑 공유했을 때, 그것이 학생들이 배우는 세상, 그 방법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제가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한민석 교수가 인터뷰 도중 사용한 영어단어이다. 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썼지만 오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영어 단어를 그대로 병기 하였다.

성북문화 11호.indb 31 2024-02-18 오전 10:05:56

성북 인물 초대석 2

신영성, 하민수 작가는 미술을 통해 사회 이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왔다. 신영성 작가는 80년대에 소그룹 난지도를 만들었으며, 설치와 퍼포먼스를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당시 그의 작품은 한국현대미술 가운데 80년대를 대표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 중이다. 최근에는 펜을 가지고 인물을 그리는 '만인사유상' 작업을 하고 있다.

하민수 작가는 80년대 소그룹 '메타북스'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이후에는 천과 바느질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문제, 세월호 사건, 페미니즘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아트제안'을 만들어 예술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본격화 했다.

두 작가를 그들의 갤러리이기도 한 복합문화예술공간 노드메이트(Nodemate)에서 만났다.

예술의 사회참여를 말하다.

신영성 하민수 작가를 만나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복합문화공간 노드메이트, 자신의 작품 앞에서. 하민수 작가.



복합문화공간 노드메이트, 자신의 작품 앞에서. 신영성 작가.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영성 :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을 하고 싶은 설치미술 작가인 신영성입니다.

하민수 : 저는 학교 졸업하고 80년 중반에 데뷔해서 신영성 선생님이랑 비슷한 시간대에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실험적인 미술로 시작했다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페미니즘 등의 사회적 문제와 내용을 가지고 바느질로 표현 작업을 하고 있는 하민수입니다.

두 분이 미술을 시작한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신영성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다른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청소년기에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술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존재론적 고민은 철학이나 인문학에서도 많이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그중에서도 특히 미술을 택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신영성 : 당시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미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시절엔 지금처럼 다양한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하는 게 맨날 종이에다가 - 종이도 제대로 된 종이도 아니죠. - 종이에다가 연필로 낙서하는 것이 놀이였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가장 접근이 용이했죠.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지금 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회귀했다고 봐야 할까요?

신영성 :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꼈는데, 서양은 아주 오랜 기간 축적된 유화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했을 때 펜으로 한번 그리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놀았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하민수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술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하민수 : 다른 미술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보다는 많이 늦게 출발을 했어요. 신(영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존재론적 고민을 청년 시기에 일찌감치 시작 했다고 한다면, 저는 중년이 다 돼서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 선택도 고상한 이유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유였는데, 제가 무남독녀 외동딸이라 어머니 홀로 저를 키워 주셔서 경제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 발휘할 수 있는 재능과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서 효도 좀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이 효도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전공인 것 같아요. (웃음)

두 분 모두 예술의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문제의식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위해 사전 조사를 해보니 두 분 모두 예술의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성북문화 11호.indb 34 2024-02-18 오전 10:05:59

부분에 대해 여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영성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70~80년대 한국사회 문제를 외면하는 것 같은 학교 미술 혹은 모더니즘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설치와 퍼포먼스를 택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민중미술과는 조형성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생님 작품에서 조형성이 갖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신영성 :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80년대는 산업화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면서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이 만들어졌죠. 저는 그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설치와 퍼포먼스를 택했습니다.

80년대 모더니즘 미술, 학교 내의 미술은 현실하고는 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민중미술이라는 개념도 생겨났죠. 80년대의 또 하나의 큰 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그룹(난지도)을 하면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중미술도 비판한 것이었어요.

"80년대 모더니즘 미술, 학교 내의 미술은 현실하고는 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민중미술이라는 개념도 생겨났죠. 80년대의 또 하나의 큰 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그룹(난지도)을 하면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중미술도 비판한 것이었어요.
당시 미술계의 담론 중에는 모더니즘 극복을 위해서 탈평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민중미술은 그런 점에서 조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조형성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미술계의 담론 중에는 모더니즘 극복을 위해서 탈평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민중미술은 그런 점에서 조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조형성에 주목했습니다.



신영성의 80년대 대표작 중 하나인 "Korean Dream, electric fan object+mixed media" 1000×500×30㎝,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1986-2002년, 신영성 작

성북문화 11호.indb 35 2024-02-18 오전 10:06:00

퍼포먼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와 관련해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극이나 퍼포먼스는 영상으로 남길 수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라지는 예술입니다. 반면 미술은 작품을 남기는 예술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상충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비되는 장르를 택한 이유와 계기가 있을까요? 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퍼포먼스의 의미도 듣고 싶습니다.

신영성 : 둘을 같이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설치미술과 퍼포먼스를 병행하는 작가들도 많고. 둘 다 다 중요한 여기서 관통하는 거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나온 유명한 말 있잖아요.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당시 구일장을 지냈는데, 그걸 주제로 한 것이 대표적이었죠.

퍼포먼스는 우연하게 시작됐어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퍼포먼스를 가르치는 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강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나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나 독학을 해야했죠. 저는 우연하게 대학로에 있는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할 때 연극하시던 갤러리 큐레이터가 "퍼포먼스를 기획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연극, 무용, 이런 분야가 참여하는데 미술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계기가 퍼포먼스를 하게 된 거였어요. 80년대 퍼포먼스라는 것이 미술사에서 보면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가 같이 융복합으로 진행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당시 대학로의 분위기였고, 80년대의 특징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이제 하민수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주목하셨고 최근에 세월호 사건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좀 뒤늦게 그런 관심을 가졌다고 하시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나 시점이 있었을지, 그리고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민수 : 90년도 초반은 아이 셋을 다 낳고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결심했던 무렵인데, 정말 저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내가 갖고 있는 가정사 혹은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페미니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것이 사회성을 동반한 이야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를 포함한 모든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가 던져야할 메시지가 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회로 발을 처음 들여놓게 된 계기였죠.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당시는 아이들도 다 키웠고 조금 안정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세월호 사고가 터졌죠. 세월호 사고를 이렇게 TV로 지켜보면서 그냥 온 국민이 사람들 죽어가는 거 구경하는 게 너무 처참하고 비참했어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이라 다니는 교회가 광화문에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거기서 부모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를 교회를 오가며 들어왔는데 사회가 냉담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나 정말 봐야 할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예술도 등 돌리고 있고 종교도 등 돌리고 있고 나 자신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아픔이나 사회적 현실을 담은 이야

성북문화 11호.indb 36 2024-02-18 오전 10:06:00

기를 하고, 예술 안에 어떤 감동, 서로 소통하고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 역할 사회적 기능을 다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절박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도 다시 조성하고 만들게 됐고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일본군 위안부 여성'에 대한 작업 역시, 사회적 혹은 역사적 문제 속에 해결되지 않은 여성인권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하민수 선생님께서는 솜, 천, 바느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페미니즘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소재와 방법을 택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민수 : 예술가들이 선택하는 재료들이 물성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통해 던져지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자체가 특별히 손을 대지 않아도 보여지는 자기(소재) 얼굴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솜을 사용하면서, 솜과 숫자 가지고 80년도에 작업할 때는 극히 미학적인 담론을 갖고 작업을 했었어요. 80년대에 메타복스 그룹이 출범했을 때 그때는 사회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미학적인 담론 갖고 작업을 하면서 물성이 갖



천에 바느질로 작업한 하민수 작가의 작품 '金氏가 李氏를 낳고, 李氏가 河氏를 낳고, 河氏가 申氏를 낳고.....' sewing on the cloth, 500×260cm, 1994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하민수 작.

성북문화 11호.indb 37 2024-02-18 오전 10:06:01

고 있는 어떤 텐션, 그 안에서 표정 만드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 중에서도 기호적 특징, 기호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그거 자체가 우리 인생이나 우주적인 것에 가장 기본적인 언어다.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지고 표정을 갖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에 표현을 했었어요. 솜을 소재로한 작업은 거기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90년도에 사용한 천은 아이들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화 작업이나 아크릴 작업이 좀 약간 유해 요소였어요. 제가 어떤 특별히 공간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제 작업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살림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막 냄새도 휘발성 있고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너무 곤란해서 그냥 조그마한 재봉틀 가정용 재봉틀 가지고 이렇게 한복집에서 한복 만들고 남은 짜투리 천 모아다가 그걸로 연결하면서 작업을 했고 이제 가장 여성의 직접적인 내용을 여성이 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매체라고 그럴까 재봉틀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죠.

선생님 작품들 찾아보니 나비가 유독 많이 소재로 사용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민수 : 나비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느낌은 날아가는 것, 자유로움입니다. 90년대까지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노모와 이모님까지 모셔야 했어요. 그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너무 절박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이 좀 자유로워지는 느낌, 그것의 상징적인 오브제로 선택한 것이 나비였어요. 그 중에서도 남미에 사는 파란 나비가 가장 희망을 던지는 표정 같아서, 그 나비를 수집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신영성 선생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니 2000년대 장춘, 연길, 백두산 등을 방문하시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때 조선족들을 조그만 종이에 펜으로 그리기 시작한 '바람꽃 작업'이 현재 만인사유상 작업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기르는 것 자체가 면벽수행이라고도 하셨어요. 만인사유상 작업, 즉 면벽수행을 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영성 :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긴 어렵고, 지금도 계속 면벽수행 중이죠. 오늘 인터뷰를 한다고 찾아 봤는데,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02년이더라고요. 강의 때 만난 조선족 제자가 있었는데, 2002년에 여행을 하면서 처음 중국을 갔어요. 그때 조선족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우리 민족의 잊힌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조그마한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이 되었죠. 면벽수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여수 향일암이었는데, 원효대사의 면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수행이 아니겠느냐'해서 이제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못 깨달아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같습니다. (웃음)

하민수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자전거 타는 여자' 전시를 하셨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색연필 드로잉 작업을 통해 어머니, 아내, 딸로 살면서 느꼈던 삶의 무게와 거기서 생기는 불안감에

성북문화 11호.indb 38 2024-02-18 오전 10:06:01



그녀의 초상-당신은 우리의 고운 누이이며 딸이며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sewing on the cloth & installation, 80cm×50cm(9pcs.), 2017. 하민수 작.

서 스스로의 치유법을 찾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천과 바느질 작업을 하시다가 색연필을 사용하신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치유가 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치유됐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하민수 : 전시는 2021년에 했지만, 작업은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0년까지 아이의 입시를 순서대로 치르고 부모님들께서도 치매가 와서 궁지에 몰렸어요. 그렇게 힘드니까 공황장애가 왔어요. 요새는 흔한 병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제 스스로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약을 처방 받아 먹었는데, 약을 먹으니 정신적으로는 안정이 되는데, 바느질 작업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느질 작업이 생각보다 힘든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색연필이었습니다. 그때도 거의 나아갈 무렵이었는데, 제 안에 있는 심상(心傷)을 색연필로 그려본 것이죠. '자전거 탄 여자'는 제 색연필 작업을 마무리 해주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타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 것이 가장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수단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 것도 걸치지 않고, 나를 포장하는 어떤 것도 없이 자유롭게 자전거에 앉아서 막 달리는 것 자체가 나의 자아를 한껏 부양시켜 놓는 느낌이었어요. "너 많이 힘들었지?"하고 저를 좀 도닥거려주는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북문화 11호.indb 39 2024-02-18 오전 10:06:02



만인사유상, pen on the paper, 1060×228cm(30점), 2012-2020년. 신영성 작.

이제 작품이 아닌 두 분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분 활동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두 분이 만나서 결혼까지 하시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신영성 : 벌써 38년 정도가 됐네요. 86년에 대학원에서 만났죠. 저는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바로 대학원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같이 작업을 동료로서 작업하자는 약속, 같은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약속, 혼자되신 어머님을 같이 모시고 살자는 약속이었는데, 그런 약속을 하고 만나 결혼하고 손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민수 : 대학원에 난지도 그룹하고 제가 한 메타복스 그룹이 두 개가 당시 만들어졌는데 좀 성향이 달라요. 그래도 가끔 스터디도 같이 했고, 전시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보니 공동의 관심사로 일하는 경험이 많았었는데, 그 시기에는 작업하고 사는 게 그냥 제 일상이고 또 이분(신영성)의 일상이고 그랬어요. 저는 물론 부모님 모셔야 되는 거, 존경받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한 조건이라면 같이 동행하자 그런 의미였는데, 더 중요했던 것은 지금 대학원에서 작업실 같이 나눠서 쓰는 것처럼 결혼하고도 그렇게 작업하자 그 말에 가장 넘어갔어요. 그러면 평생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작업을 하거나 누가 후원자가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은 동료가 생기겠구나 그 생각이 가장 설득력 있었고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듣다보니 장점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같은 분야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에 장단점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로서 같이 활동하시며 느끼는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신영성 :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동료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많이 없어졌어요. 80년대의 대표적인 소그룹이라는 게 난지도, 메타복스인데 그 멤버조차도 지금 작업하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니까요. 무슨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조언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점이라 하면 너무 잘

성북문화 11호.indb 40 2024-02-18 오전 10:06:02

알고 있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단점이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웃음)

하민수 : 옆에 서로 비평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작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이제 성북구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성북구에 자리 잡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민수 : 제가 결혼 조건이 우리 엄마 모시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현재 갤러리가 있는 이곳이 모두 한옥집이었다가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는데,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쭉 자랐어요. 자연히 성북구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럼 이 건물에 갤러리를 여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민수 : 자녀 셋이 모두 딸인데, 셋 모두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 중 둘은 결혼을 했죠. 저희는 아이들이 회사를 잘 다니며 돈 벌고 평범하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미술 중에서도 디자인을 하게 부추겼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경력이 단절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셋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같이 공유하고 힘을 모으면 일도 더 잘되고 육아하는 기간도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물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니 벽면이 있으니 갤러리로 사용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었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건물이 최초의 독서실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그 내력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민수 : 저희 외삼촌이 우리나라 제일 최초 독서실을 운영하셨어요. 독서실 협회 1대 회장도 하셨고요.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니고 길 건너 쪽의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남의 집에서 시작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현재의 건물 안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셨죠. 이전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운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최초인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처음 시작하고 지속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록들을 남겨서 예전에는 간판도 붙여놨었죠.

두 분 모두 성북구에서 생활하시고, 활동하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성북구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성북구 문화예술계의 특성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성 : 저희가 87년에 결혼해서 살면서 나름대로의 내실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최근 한 10년 정도 전부터 성북구 지역문화를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전에는 주로 전체적인 미술사와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이런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성북구 하면 근대 미술의 수많은 작가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문학, 음악 등 많은 예술인들이 살았던 곳이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현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

성북문화 11호.indb 41 2024-02-18 오전 10:06:02



신영성, 하민수 작가 부부, 여행 중 사진

상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지역에 활동하는 작가들의 모임도 없었으니까요. 최근에 모임도 만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발견되고 그것을 또 어떻게 고쳐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성북문화원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을 보면 대학과 단체와 협의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민수 : 조금 추가를 한다면 전문적으로 예술의 길을 쌓아온 작가들과 취미 활동으로 미술을 선택해서 예술을 향유하시는 분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모두 중요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새 인문학의 위기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술의 위기이기도 하죠. 생산을 하지 못하니 인문학이, 예술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 분께서는 예술의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셨고 지금도 그런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사회에서 예술이 갖는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북문화 11호.indb 42 2024-02-18 오전 10:06:03

신영성 : 글쎄요. 그러니까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존재 본질의 의미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가느냐? 그런 것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담론화 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문학이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기계랑 뭐가 다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 없이 목표를 쟁취하고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정말 문제인 것이 그냥 의대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의대 가서 행복할까 그리고 그게 과연 삶의 의미일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가야 될 사람은 있겠죠. 근데 목표가 그냥 그거(의대)야 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길이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찾고 그 길을 가는 게 자기 삶이고,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민수 : 요즘은 예술가 젊은 예술가들이 다 고학력의 지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심지어 회화과도 박사 과정까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 지성인들인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자기를 갖추어서 세상에 나왔으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까하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 같은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술가 모두가 그렇게 사회적 책임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예술의 여러 기능 중에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현대미술 안에서는 그런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좀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술 시장의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러다보니 어떻게 하면 작품이 잘 팔릴까? 대학 졸업 후에 계속 좋은 화랑과 연결되고 좋은 레지던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작가들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미술시장은 활발해졌을지 모르지만,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 예술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소통을 위한 깊은 내용의 이야기를 예술로서 메시지로 던지는 것은 살기 어려운 현실 문제 때문에 다 집어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아마 남편과 제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적절하게 욕심내지 않고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이런 예술을 하는 것이 그래도 마음에 흡족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면 지속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마저도 상업 미술의 마음을 쏟아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냥 온 세상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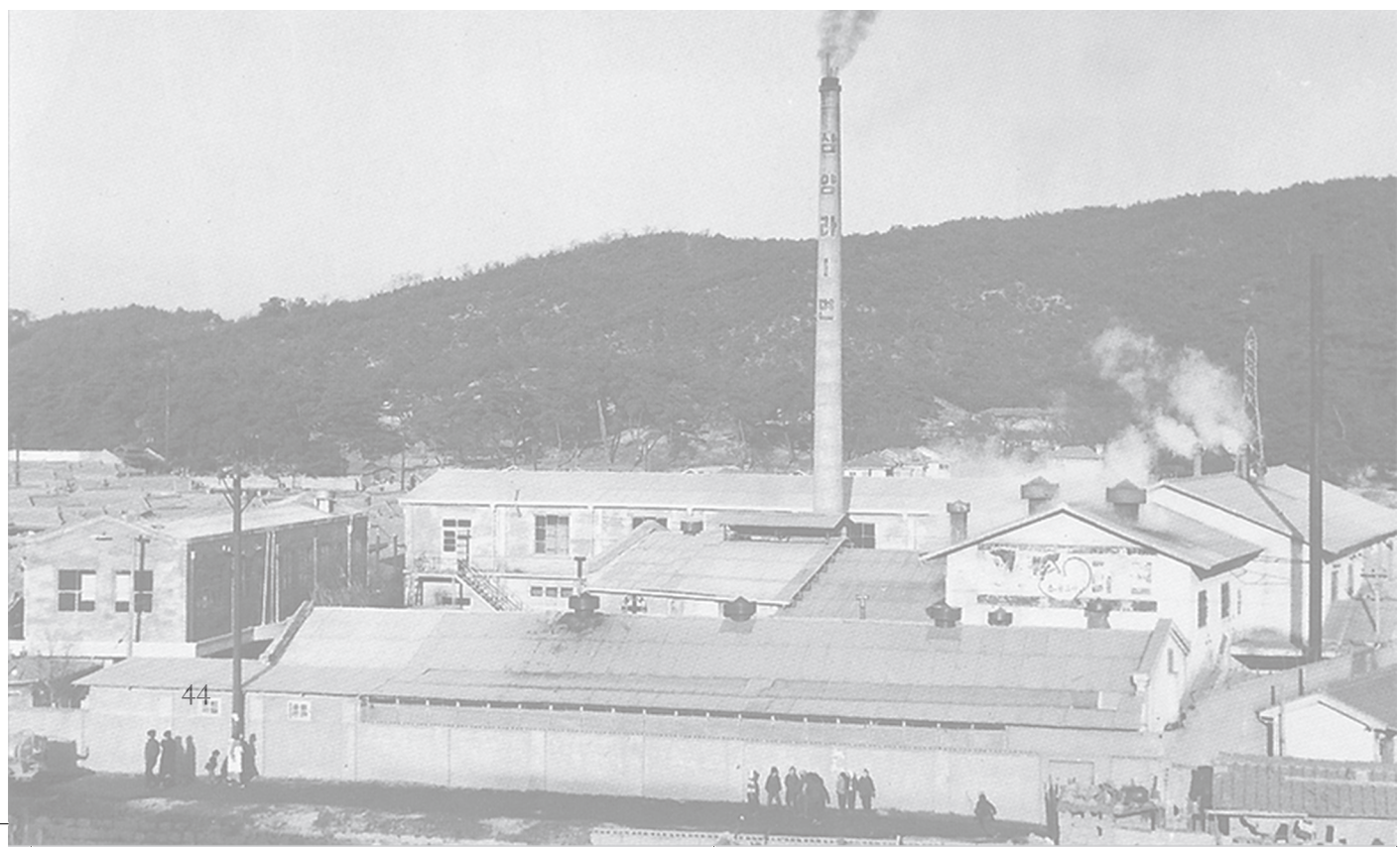
그렇다면 예술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인문학의 가장 근본적인 마치 기둥과 같은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기둥이 그냥 쓰러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감동스럽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마지막 질문은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것이었는데, 답변 속에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문화 11호.indb 43 2024-02-18 오전 10:06:03



성북의 산업



성북문화 11호.indb 44 2024-02-18 오전 10:06:03

연탄 한 장의 추억

글 : 오진아(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거리를 걷다 보면 자욱한 연기와 군침 도는 냄새를 함께 내뿜는 연탄구이 가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제는 '연탄'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조리용으로 쓰는 것을 떠올릴 테지만, 연탄의 열기로 아랫목에 까맣게 눌어붙어 버린 장판과 꽁꽁 언 골목길에 뿌려진 하얀 연탄재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미아리(현 길음동, 월곡동 일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던 작가 박민우는 자전적 소설『마흔 살의, 여덟 살』에서 1980년대 보통 가정집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 벗겨진 철문, PVC 재질의 푸르둥둥한 지붕을 갖춘 보통의 미아리 집이었다. 옆집과 옆집의 옆집도 모두 같을 것이다. 어머니 친구들은 대부분 전세살이였고, 아주머니도 그랬다. 마당 구석을 차지한 단칸방은 끈적이는 럭키 모노륨 장판이 거뭇거뭇 연탄불에 눌어붙어 시멘트 방바닥을 덮고 있을 테고, 개나리 벽지는 지구표 색연필과 왕자파스 낙서로 지저분할 것이다.
>
> — 박민우, 2015,『마흔 살의, 여덟 살』, 257-259쪽

석탄 가루를 버무려 만든 원통 모양의 고체연료인 연탄은 화력이 강하면서도 오래 타는 데다 다루기도 쉽고 경제적인 연료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연탄은 6.25 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사랑받았던 가장 보편적인 난방용 연료이자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이었다. 1950년대 이후 연탄 소비량이 급증하자 정부의 관계부처들은 원활한 연탄공급을 위해 자주 회의를 열었고, 이러한 노력은 정부가 연탄공장 단지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배경 속 탄생한 대표적인 연탄공장 단지가 바로 이문·석관 단지이다.


關係官會合熟
冬期燃料對策에腐心

겨울철 연료 공급 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 관한 기사 (동아일보,「관계관회합숙의 상공부 동기 연료대책에 부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64년 이문·석관 지역에 중앙선의 망우역과 경원선의 성북역(현 광운대역)을 연결하는 망우선이 개통되었다. 그전까지는 중앙선을 통해 연탄을 수송해야 했지만, 망우선이 개통된 후에는 청량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춘선과 경원선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통 기반을 바탕으로 청량리역 저탄장을 대

성북문화 11호.indb 45 2024-02-18 오전 10:06:03




1978년 칠표연탄 공장. ⓒ서울기록원

신할 이문동 저탄장이 건립되었다. 1968년 삼천리 연탄과 한성 연탄, 정원 연탄을 시작으로 수많은 연탄공장이 들어서며 단지를 형성하였다. 이중 삼천리 연탄은 아직도 동대문구 이문동에 자리 잡고 있다.

연탄공장 단지가 들어서자, 이를 따라 석관동에는 연탄 수송이나 판매 등 연탄 관련 종사자가 많이 생겨났다. 돌곶이시장 근처에서 석유 가게를 운영하는 이수형 씨는 15년간 개인차량을 이용해 연탄을 수송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차 한 대에 700~800장의 연탄을 실었지만, 수송차가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1,600~2,000장 정도를 실어 날랐다고 말한다. 석관동에서 20여 년간 연탄 장사를 했던 권춘자 씨는 당시 연탄배달의 어려움과 연탄공장들의 위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도 리어카를 안 끌어봐서 처음에는 못 끌었어요. 그 연탄이 무거워요. 타고 나면 가벼운데 시커먼 거는 너무 무거워. 막 울면서 갔었죠. 그땐 여기가 전부 벌판이었어요. 길도 너무 안 좋아서 리어카가 잘 안 따라오는데 뒤에서 누가 가다가 밀어주려고 해도 손이 시커멓게 되니까 못 밀어주는 거야.
>
> — 선종욱 외 2인. 2021.『온기를 배달해 드립니다』. 성북문화원. 35-36쪽




2021년 삼천리 연탄공장. ⓒ성북문화원

성북문화 11호.indb 46 2024-02-18 오전 10:0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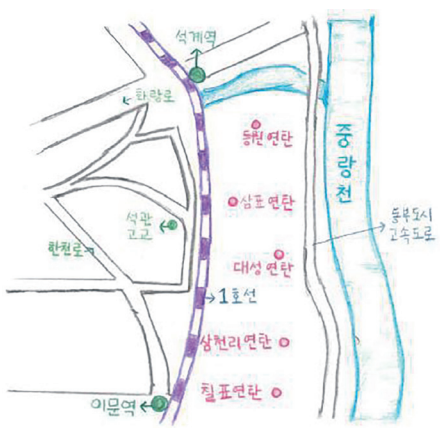
>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실어 와서 장사를 했는데, 그때 삼천리 연탄공장이 이문동 굴다리 밑에 있었어요. 삼천리, 칠표, 대성, 삼성, 동원연탄 이렇게 다섯 개가 쭉 내려가며 있었어. 옛날에는 삼천리에서 연탄을 제일 많이 가져왔지. 삼천리 탄이 제일 좋았어요. 삼천리가 어려워져서 연탄값 막 오른다고 할 때는 삼성도 가서 조금 사 오고, 칠표도 가서 사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안 산다고 그래. 탄이 나쁘다고. 그래도 우선 팔아야 하니까 가서 떼 왔어요. 지금은 삼천리 하나 남아있어요. 이문동에 지하로 푹 내려가서 있잖아요. 연탄 가루날린다고 주민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은 푹 내려가서 석계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어요.
>
> — 선종욱 외 2인. 2021.『온기를 배달해 드립니다』. 성북문화원. 40쪽

연탄 제조업과 운송업은 석관동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산업이었지만 연탄공장에서 날려오는 탄가루와 소음은 주민들의 골칫거리이기도 했다.

> 2만 5천 6백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성북구 석관1동은 금년 봄부터 새집이 들어서고 버스 종점과 시장이 생기는 등 신흥주택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주택가에 위치한 8개 연탄공장의 산더미 같은 저탄장에서 날아드는 탄가루와 소음에 시달려야 하고 주택가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연탄트럭과 버스 등이 과속으로 달려 먼지 소음 진동의 복합 공해 속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
>
> — 경향신문.「지상 반상회 성북구 석관1동 일대」. 1976.11.30.

>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주택가 부근에 위치한 이문동의 7개 연탄공장 무연탄 적치장을 딴 곳으로 옮겨줄 것을 당국과 연탄공장 측에 진정해 오고 있으나 메아리가 없다는 것이다. 휘경역 부근의 주택가엔 바람이 조금씩만 불어도 탄가루가 집안까지 새까맣게 날려오는 바람에 탄가루가 호흡기에 들어가 목이 깔깔하고 호흡기질환 환자가 많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
> — 동아일보.「"빨래도 방에서 말려요"」. 1978.02.2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3년 대규모의 방진망 설치 공사가 이루어졌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연탄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연탄공장은 1980~1990년대에 그 수가 빠르게 줄어든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국에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면서 1986년에서 2008년까지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중앙난방방식과 개별 유류 보일러 방식의 주택이 많이 건설되자 대중적인 가정용 연료였던 연탄이 점차



이문·석관 단지 내 연탄공장 위치. ©성북문화원

성북문화 11호.indb 47 2024-02-18 오전 10:06:04



2022년 도원교통봉사단 정릉3동 연탄나눔. ⓒ성북구청



2022년 돈암 아름다운봉사단 연탄나눔. ⓒ성북구청

설 자리를 잃었다.

연탄공장이 하나둘 사라진 후 그 자리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이제 이문·석관 단지의 연탄공장은 삼천리 연탄 한 곳만 남아있다. 하지만 아직 연탄 한 장, 한 장이 소중한 이웃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매년 들려온다. 이들이 나누는 것을 단순히 연탄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연탄과 함께 나누는 마음의 온도를 생각해 본다.

참고 자료 |
박민우. 2015.『마흔 살의, 여덟 살』. 플럼북스.
이계형 외 2인. 2018.『서울 洞의 역사 : 성북구. 4 , 정릉동·길음동·월곡동·장위동·석관동』. 서울역사편찬원.
박수진 외 5인. 2019.『장위동·석관동』. 성북문화원.
선종욱 외 2인. 2021.『온기를 배달해 드립니다』. 성북문화원
김정숙. 2011.「서울특별시 연탄제조업의 입지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일보.「관계관회합숙의 상공부 동기(冬期) 연료대책에 부심(腐心)」, 1954.09.15.
경향신문.「지상 반상회 성북구 석관1동 일대」. 1976.11.30.
동아일보.「"빨래도 방에서 말려요"」.1978.02.25.
조선일보.「이문-석관동 일대에 탄가루 방진망 설치」. 1983.11.25.
조선일보.「연탄공장 이전 요구 주민 1백여명 시위」. 1988.0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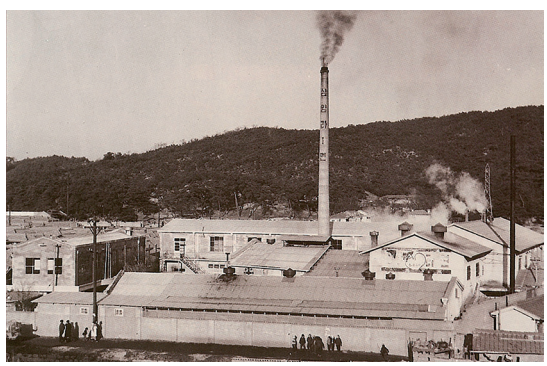
성북문화 11호.indb 48 2024-02-18 오전 10:06:07

한국 라면의 고향, 성북구 하월곡동

글 : 백외준(성북문화원 연구과장)

어쩌다 배는 고프고 그렇다고 차려 먹기는 귀찮고 그럴 때 한 봉지 사다가 끓여 먹는 것이 라면이다. 대충 물 양만 잘 맞추고 계란 하나 휘휘 저어 풀고 맛있는 신김치 한 종지만 옆에 놓으면 아무리 요리에 무능한 사람이라도 그럭저럭 흡족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피로하고 배고픈 현대인들의 허기를 간편한 방법으로 달래주기에 이만한 식품이 없다.

1958년 일본 닛신(日淸)식품에서 처음 개발한 인스턴트 라면은 기름에 튀겨서 말린 국수에 양념을 첨가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즉석식품이다. 1960년대 초 일본에서 라면이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삼양식품 창업자 전중윤(全仲潤, 1919~2014)은 한국전쟁 이후 대다수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일본을 왕래하며 인스턴트 라면을 생산할 방법을 모색했다. 노력 끝에 그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일본 라면업계 2위 기업이었던 묘조(明星)식품으로부터 라면 제조 기계 도입과 기술 지원을 약속 받았다. 그리하여 삼양식품은 1963년 9월 15일, 성북구 월곡천(月谷川)에 접한 하월곡동 82-9번지의 생산 공장에서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삼양라면'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삼양식품 하월곡동 공장(1963) ⓒ『삼양식품삼십년사』



묘조(明星)식품 오쿠이(奧井) 사장 내한 환영 기념 단체 사진 (1963년 11월 삼양식품 하월곡동 공장) ⓒ『삼양식품삼십년사』

성북문화 11호.indb 49 2024-02-18 오전 10:0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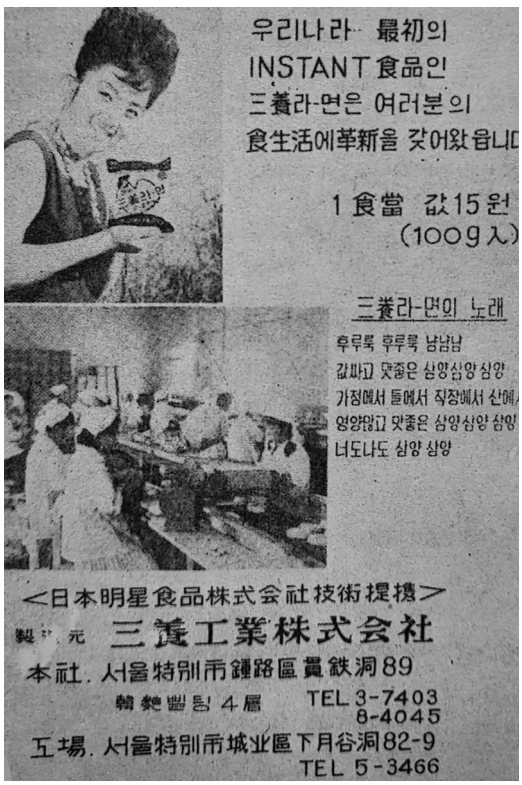


서울생활사박물관에 전시된 삼양라면 (성북문화원 오진아 연구원 촬영)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고 싶었다는 삼양식품 창업자의 기대와 달리 '즉석국수'라는 수식어가 붙은 초창기의 '라-면'은 생소한데다 가격도 싸지 않고 한국인의 입맛에도 맞지 않아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삼양이 출시한 라면은 일본식 면에다 닭고기 국물을 재현한 스프라서 느끼한 맛이 났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삼양식품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회사 내에 스프 관련 실험실을 설치하고 종로 거리로 나가 1년 넘게 공개 시식회를 하는 등 개발에 열중했다. 1966년에는 청와대까지 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라면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때 라면을 처음 먹은 박정희는 "우리 한국인들은 맵고 짭짤한 맛을 좋아하니, 고춧가루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삼양식품에 전했다고 한다. 이후 한국 라면에는 매운맛을 가미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대통령의 관심과 함께 정부가 쌀을 아끼기 위한 혼분식 장려 운동을 추진하여 라면 판매량은 점점 늘어났다. 삼양라면은 출시 초인 1963년 12월 판매량이 20만 봉지였던 것이 1966년 11월에는 240만 봉지, 1969년에는 1천 5백만 봉지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다. 이어 농심, 팔도, 오뚜기 등 다른 라면 회사들도 생겨나 경쟁체제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면 100원 짜리 라면 한 봉지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 라면은 한국인에게 쌀밥 다음가는 제2의 주식이 되었다.

성북문화 11호.indb 50 2024-02-18 오전 10:06:09



초창기 삼양라면 광고. ©『삼양식품삼십년사』



초창기 삼양라면 생산 공정. ©『삼양식품삼십년사』

2023년은 한국에서 라면이 생산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첫선을 보인 라면은 이제 한국인의 대표적 소울푸드가 되었다. 2022년 세계라면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7봉지로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집 앞 편의점 매대를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는 품목도 라면이다.

그러나 간혹 퇴근 녘 편의점 앞을 지나다 좁은 매장 안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그만큼 또 애처로운 풍경은 없어 보인다. 학원이다 친구간의 사귐이다 저마다 사연은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푸짐한 저녁 한 상 차려줄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바쁨과 무정함이 편의점 유리창의 영상으로 찍혀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분명 한국인들은 6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는 있지만 삶의 허기는 더 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때다. 60년 전 라면을 처음 맛본 그때에 비해 오늘 우리는 더 여유롭고 풍족한, 그래서 더 행복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 칼칼한 라면 국물을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볼 일이다.

성북문화 11호.indb 51 2024-02-18 오전 10:06:09



삼양식품 본사 (2023). ⓒ 삼양식품 홈페이지

▶ 삼양식품 하월곡동 사옥

1963년 삼양식품 공장이 처음 들어선 곳은 하월곡동 지금의 삼양식품 본사가 있는 자리이다. 그러나 몇 년 뒤 라면의 폭발적 수요 증가를 하월곡동 공장의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삼양식품은 다른 곳에 새 공장을 지어 시설을 확장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1967년 1월 도봉동에 새 공장을 짓기로 하고 1967년 11월 제조설비를 늘려 생산 라인을 이전했다. 한편 하월곡동 공장은 라면용 향신료만을 생산하다 1976년에는 이마저도 용인 기흥공장으로 넘기고 이 자리에 종업원용 아파트 세 동을 건설했다. 이후 1997년, 삼양식품은 종로구 수송동에 있던 본사를 이전해 옛 창업의 터였던 하월곡동 82-9번지에 현대식 신사옥을 짓고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89년 시작된 '우지파동'으로 존폐의 위기를 겪었던 삼양식품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회생의 기회를 맞았다. 이후 연구개발과 경영혁신을 계속해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메가히트를 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성북문화 11호.indb 52 2024-02-18 오전 10:06:10

성북공간 1

목재파쇄장에서 오동숲속도서관으로

글 : 김지훈(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팀장)



오동숲속도서관 전경(출처: 성북구청)

밤이 길어지는 시기(추분, 秋分)를 지나 찬 이슬이 내리는(한로, 寒露) 계절은 10월이다. 10월 가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선선한 바람과 싱그러운 햇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열리는 행사와 축제로 인해 잦은 야외활동이 생각날 것이다. 봄도 놀러 가기 좋은 계절이지만, 가을은 봄보다 평균적으로 낮의 길이가 더 짧기에 근처 나들이나 산에 다녀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책 읽기도 좋아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할까?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확실한 건 아주 오래전부터 가을은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 당나라 시절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한유(韓愈, 768-824)가 아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부독서성남시(符讀書城南詩)》라는 시를 지어 보냈다. 시에는 등화가친(燈火可親), 즉 '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앞뒤 내용의 맥락을 고려하면 가을바람이 선선한 저녁에는 등잔불을 켜고 책을 읽기에 좋다는 표현이다. 이에 흔히 '등화가친의 계절'이라고 쓰고 가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생각의 꼬리를 물고 따라가 보자. 그럼 독서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비슷한 단어이기도 한 '도서관'일 것이다. 도서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받을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료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설이자,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곳이기도 하다. 최근 주민들의 독서와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연을 품고 있는 도서관이 성북구에 개관했다.



오동 숲속도서관(책쉼터) 개관식 포스터(출처: 성북구청)

2023년 5월 2일 하월곡동 오동근린공원에 '오동숲속도서관'(오동근린공원 책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최근에 개관한 이유도 있지만, 성북구 내 16개의 도서관 중 하나인 이 도서관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원래 이곳은 오래된 '목재파쇄장'이 있어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장소였다. 기존의 부정적인 요소였던 '목재'가 역으로 다시 목재를 사용하여 월곡산 자락길을 형상화한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진 것이다.

성북문화 11호.indb 54 2024-02-18 오전 10:06:10

이미 사라져 버린 목재파쇄장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2008년 신문 기사에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목조파쇄기(출처 : CNBNEWS)

"성북구가 1석 3조 이상의 다목적 효과를 내는 목재파쇄기 1대를 이달 15일부터 오동근린공원 내에 설치,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파쇄기는, 공원이나 거리의 녹지대는 물론 아파트와 주택, 공공기관 등에서 가지치기 후 발생하는 나무부산물과 고사목을 유용한 친환경 자원으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파쇄기를 거친 폐목재는 잘게 분쇄된 다음 유기질 비료로 화단이나 가로수, 공원 녹지대에 뿌려져, 나무 성장을 촉진하고 먼지와 잡초발생도 억제하게 된다. 또 제거된 나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폐목처리비용으로 연간 1천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이것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CNBNEWS, 2008.2.6.

위 기사 내용처럼 2008년 2월에 설치된 목재파쇄기의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물론 의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미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과



오동숲속도서관 전경 © 운생동 건축사무소

성북문화 11호.indb 55 2024-02-18 오전 10:06:14




오동숲속도서관 내부 ⓒ 운생동 건축사무소

민원을 야기하며 처리비용까지 들어 골칫덩어리였던 폐목재들이, 성북구청의 작은 관심으로 오히려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바뀌고 예산도 절감했다. 지금으로써는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2008년 설치 이후 시간이 흘러 주변 상황이 변하고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인식도 달라진 것이 아닐까? 이제는 삶의 여유와 함께 문화복지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래는 개관식 때 만난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첫째는 나무가 풍성해졌잖아요. 둘레길이 됐잖아요. 어르신도 다니고 아이들도 놀 수 있게 놀이터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 딜라이브TV인터뷰, 성북구 하월곡동 이ㅇㅇ, 2023.5.2.

오동숲속도서관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1번 출구에서 도보 20여 분 거리에 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오동근린공원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도서관은 428㎡규모의 1층 건물로 중앙에 커뮤니티 공간의 층고가 7.5m로 높아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50여 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도서는 7,6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100평이 안되는 작은 도서관 공간이지만 지붕을 이루는 삼각프레임의 창호틀과 책꽂이 틀의 다양한 겹침과 병치는 주변의 풍경과 자연의 빛을 받아들이는 틈새의 장치라 볼수 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길 등 녹색공간이 있어 주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쉼터가 생긴 것이다. 도서관의 진정한 매력은 월곡산 자락길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에서 자락길을 따라 20분을 걸으면 월곡산 정상에 다다른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용마산, 천장산, 구룡산, 청계산 등을 볼 수 있는 서울시 선정 우수조망명소이다. 부연하자면 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주변은 새로운 건축적 제안이 필요한 곳이었다. 오동숲속도서관은 공원길을 확장하여 도서관 내로 보행동선을 끌어들이고 월곡산의 형상을 따라 지붕이 중첩되는 구조로 완성했다.

도서관은 어수선하게 방치되었던 자락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조용한 쉼터를 제공하여 유휴 공

성북문화 11호.indb 56 2024-02-18 오전 10:06:18




오동숲속도서관 외부 ⓒ 운생동 건축사무소

지의 새로운 활용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소소하지만 지역주민의 일상 속에 작은 기쁨을 부여하는 공공시설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었다. 건축은 운생동건축사무소(대표 장윤규, 신창훈)에서 진행했다.

이처럼 오동숲속도서관은 독서와 나들이가 모두 가능한 성북구의 '가을의 장소'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상학적 가을은 가장 짧은 기간이다. 이유는 가을의 기온 하강 폭이 봄의 기온 상승 폭보다 급격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 고온이 매우 심할 경우 10월 초까지 여름이고, 11월 중순이면 겨울이 시작되는 경우까지 있다. 서울 기준 추분(秋分)~소설(小雪)이 가을이나 보통 백로(白露) 무렵부터는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며, 이는 11월까지 계속 이어진다. 가을은 짧다. 가을에는 오동근린공원에서 붉게 혹은 노랗게 물든 단풍나무들을 볼 수 있다. 가을뿐만 아니라 봄, 여름, 겨울 언제든 오동근린공원과 오동숲속도서관을 방문하면 좋다.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에서 구축한 성북마을아카이브는 16개의 성북구립도서관과 연동되어 있다. 성북마을아카이브에서 성북구의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면, 조사·연구한 내용뿐만 아니라 성북구립도서관 소장 자료도 함께 나온다.

참고자료 |
서울시 뉴스, "오두막 같은 아늑함, 월곡산 초입 오동숲속도서관 개관"(2023. 5. 3.)
유튜브 딜라이브TV, "동북권 힐링공간 탄생…오동숲속도서관 개관"(2023. 5. 3.)
동아일보," [성북구]수생식물 보며 편안한 휴식"(2023. 10. 10.)
cnbNEWS, "성북구, 오동근린공원 '1석 3조' 목재파쇄기!"(2008. 2. 6.)
표시정, 『처음 만나는 고사성어』, 미래주니어, 2014.
성북마을아카이브(archive. sb. go. kr)
오동숲속도서관(https://www. sblib. seoul. kr/odlib/index. do)
성북구립도서관(www. sblib. seoul. kr/library/index. do)
2023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오동숲속도서관> 작품설명

성북문화 11호.indb 57 2024-02-18 오전 10:06:23

성북공간 2

창작연극의 올림터가 된 성북1가압장

글: 백승민(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한성대입구역을 나와 동소문동 방면을 바라보면 언덕을 깎아내고 올린 거대한 건물이 있다. 언덕을 깎아내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가림벽이 세워져 있었는데, 2023년 연말께부턴 붉은빛 도는 벽돌로 이뤄진 건물의 형태가 드러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궁금하게 한 것이다.

붉은 벽돌로 이뤄져 얼핏 인근 혜화동 일대의 분위기가 나는 이 건물은 서울시 창작연극지원센터이다. 창작연극지원센터는 대학로 창작공연계를 보호·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공표되었다. 서울시는 "열악한 공연환경에 놓인 연극인들을 위한 공연장, 분장실, 연습실, 세미나실, 사무실과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림벽 일부가 제거된 최근 건설 진행 사진 ⓒ 한성대성곽마을아카이브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서울시 창작연극지원센터 © 성북마을아카이브



위안부소녀상이 세워진 가로공원 사진 © 성북마을아카이브



가로공원 전경 사진 © 성북마을아카이브

해당 공간은 본래 가로공원과 성북1가압장이 있던 장소였다. 성북동 초입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동네 주민들에겐 버스정류장 뒤 정자가 있던 쉼터, 계단을 오르면 보이는 나무와 벤치로 익숙한 장소일 것이다. 아마 버스든 도보든 언덕길을 오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다. 가로공원에는 본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창작연극센터 건설을 위한 부지정리가 시작되고 나서부턴 성북천 분수마루 광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성북문화 11호.indb 59 2024-02-18 오전 10:06:27



성북1가압장 건물 사진 ⓒ 성북마을아카이브

한편 가로공원과 달리 '성북1가압장'이란 단어는 생소한 이름이다. 가압장(加壓場)은 수압을 높이는 펌프시설로서 고지대 등 수입이 약한 지역의 수압을 높여 수돗물이 잘 나오게 하는 시설이다. 기술이 부족할 때는 펌프를 돌릴 때 나는 소음이 심해 주택가 인근에 건설된 가압장은 민원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성북1가압장은 성북동, 동소문동 고지대로 수돗물을 끌어올리며 오랜기간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책임져오던 시설이었다.


서울의 上水道
躍進에 躍進 1年후면 물 걱정없다
올해들어 8萬톤 增産
普光洞수원지 1年앞당겨 竣工
12個地域에 加壓시설
40萬 高地帶 住民도 물맛 보게돼
우선적은물나눠쓰게
時間制등非常策세워
70年엔 給水量 100萬톤, 1人당240리터

1967.08.15. 경향신문 기사 사진 ⓒ 경향신문

가압장은 언제 성북동에 들어왔을까? 1967년 8월 15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성북1가압장의 시작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상수도 문제를 지적하는 이 기사는 1967년 연초 착공에 들어가 6월 경 성북구 성북동 일대 등에 가압시설이 완공되었음을 알린다. 성북1가압장 및 지금도 존재하는 성북2가압장이 건립되며 수도사정이 좋지 않았던 성북동과 동소문동의 고지대가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성북동 고지대에 수돗물을 공

성북문화 11호.indb 60 2024-02-18 오전 10:06:28

급하던 성북동 가압장은 인근의 인구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량·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어느 순간부터는 개별 소규모 가압장들은 하나하나 폐쇄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7월 약 2만㎡ 규모의 개운산 배수지가 완공되며 정릉2가압장, 종암가압장 등과 함께 폐쇄된 성북1가압장은 수년간 빈 건물로 남아있게 된다.

폐쇄된 성북1가압장 건물은 그 건물과 부지의 용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를 끌어안고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성북1가압장과 가로공원을 합친 부지에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이 확정된 이후, 성북1가압장은 2017년 성북예술동 유휴공간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건축가들이 모여 '성북예술가압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작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한 성북1가압장에서는 2017년 서울건축도시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지역 건축가 모임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어 제3회 성북미술협회정기전이나 여러 예술가들의 개인전 등이 개최되며 한성대입구역을 오가는 주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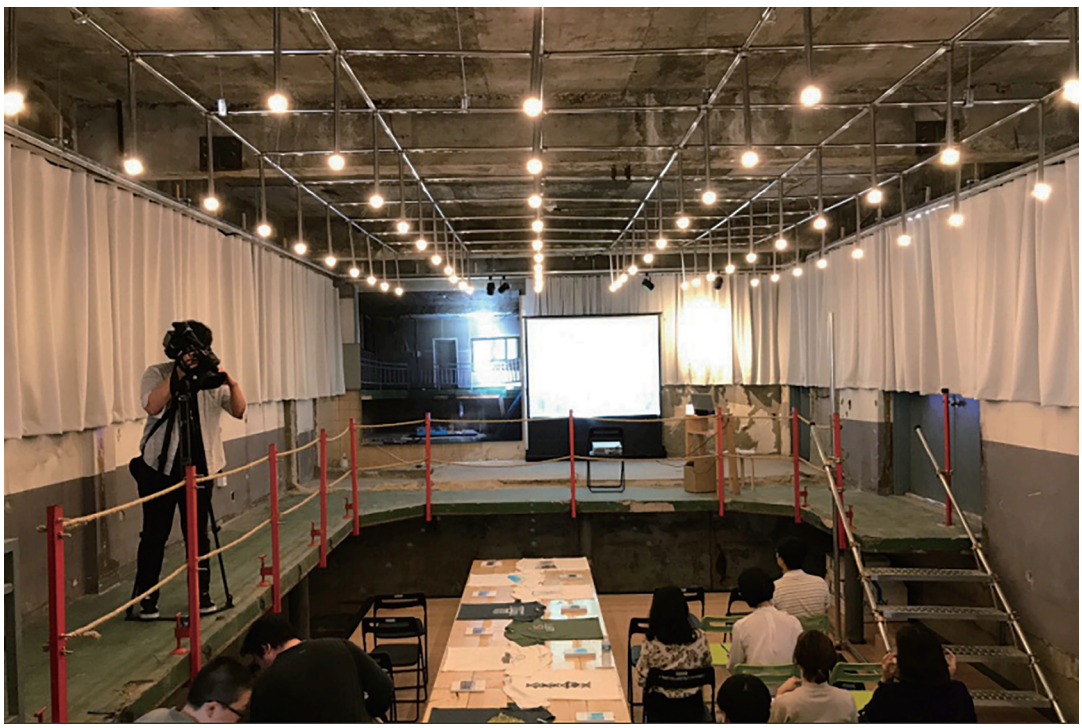
2020년 3월 창작연극지원센터 착공이 시작되며 옛 성북1가압장이자 성북예술가압장 건물의 철거가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공사 가림벽은 바로 그 언덕을 깎고, 건물의 철거를 진행하던 과정이다. 건물을 허물고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옛 성북1가압장의 흔적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성북1가압장은 폐쇄되었지만 성북2가압장은 성북2아리수올림터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도 열심히 수돗물을 끌어올리고 있다.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가압장이 아니라 올림터라는 친근한 순 우리말 이름으로 개칭된 것이 재미있는 지점이다. 성북1가압장이 고지대의 주민들을 위해 수돗물을 끌어올린 것과 같이 창작연극지원센터가 연극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끌어)올림터가 되기를 바란다.



관련 포스터 사진 ⓒ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 11호.indb 61 2024-02-18 오전 10:06:29



성북예술가압장 내 전시사진 ⓒ 도시건축집단성북동

물을 끌어올리는 공간이었던 성북1가압장은 수십년의 세월을 지나며 창작연극지원센터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름과 모습이 바뀌어도 무언가를 끌어올린다는 가치는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가고 있다. 성북마을아카이브는 이러한 성북구의 변화상을 계속해서 담아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박현영·안현진, 「도시 내 유휴시설의 활용 가능성 탐구 - 서울시 상수도 가압장을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20, 서울연구원, 2019.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2023.06 portforlio(http://ubac.kr/)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https://cis.seoul.go.kr/)
성북마을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
성북문화재단(https://www.sbculture.or.kr/)
매일건설신문

성북문화 11호.indb 62 2024-02-18 오전 10:06:29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역사 인물 1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대표 마라토너

서 윤 복

글 : 장지희(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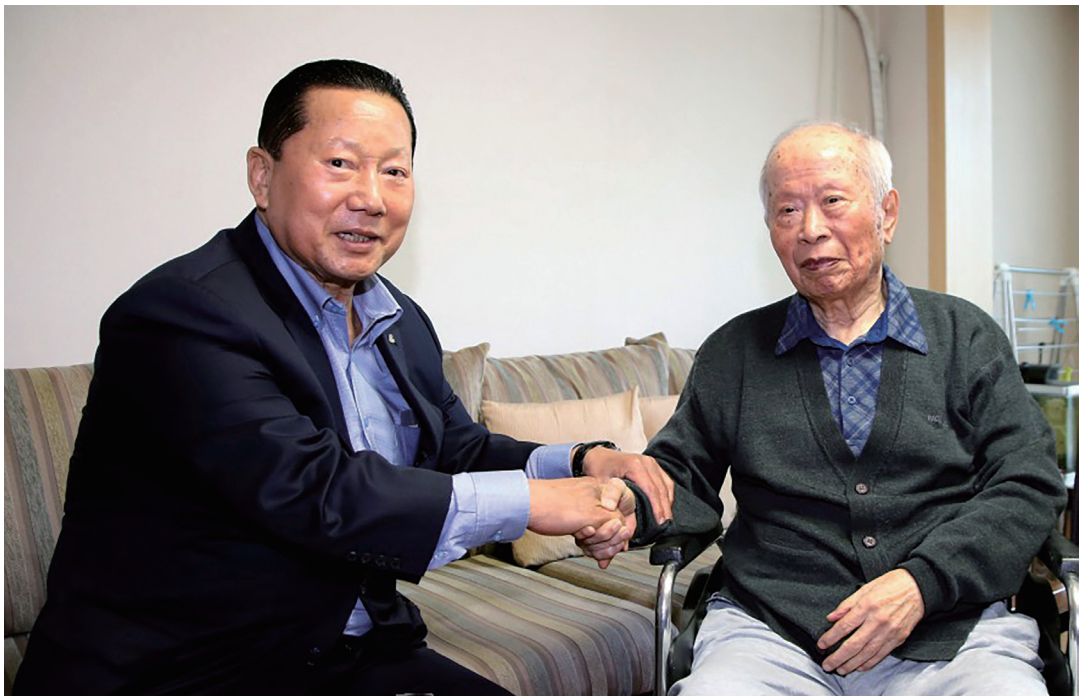
올해 9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에 첫 메달을 안겨준 근대5종부터 수영, 펜싱, 축구, 양궁, 탁구, 육상 등 40개의 종목에서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그간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였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큰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스포츠는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아시안게임의 영웅들과 함께 최근 주목을 받은 또 한 명의 스포츠영웅이 있다. 바로 아시안게임이 시작할 무렵 개봉한 영화 <1947 보스톤>의 주인공인 마라토너 서윤복(徐潤福) 선수이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손기정 선수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는 1위를 하고도 경기 후 시상대에서 화분을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본 선수단 소속으로 올림픽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금메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광복 이후 손기정 선수는 지난 올림픽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태극마크를 가슴에 새기고 달릴 선수를 찾아 나섰고, 제2의 손기정으로 촉망받았던 서윤복 선수와 연을 맺게 되었다. 1923년, 고양군 평면 녹번리(현재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에서 태어난 서윤복은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달리기를 하면 항상 1등을 할 정도로 육상에 재능이 있었다. 그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를 보며 육상선수를 꿈꾸게 되었고, 전차를 따라 달리며 꿈을 키워나갔다.

> *내가 1등으로 들어오니까*
> *그 양반이 내게로 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야.*
> *손 잡아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 *"너, 나 누군지 알지? 너도 1등 했지만*
> *나도 1등한 사람이야, 잘해봐!"라고 하셨어.*

성북문화 11호.indb 63 2024-02-18 오전 10:06:30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과 서윤복 고문(출처: 대한체육회 체육포털)

> 테이프를 끊으려는데 저 앞에 그 양반(손기정)이 보이는 거야. 정신이 없었지만 자세히 다시 보니 손 선생님이 맞았어. 내가 1등으로 들어오니까 그 양반이 내게로 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야. 손 잡아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너, 나 누군지 알지? 너도 1등 했지만 나도 1등한 사람이야, 잘해봐!"라고 하셨어. 난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꼭 손기정 선생님처럼 돼야겠다고 다짐했지.
>
> — 오마이뉴스, "손 선생님은 내가 넘어야 할 산이었어", 2002.11.18.

서윤복은 대학 입학 전부터 육상 경기에 입문하였다. 경성상업실천학교(현 숭문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한 마라톤대회에서 1등으로 들어오는 순간 손기정을 만났던 그는 다시 한번 마라톤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육상선수로 활약하며 1946년 제1회 전조선 마라톤대회, 제1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손기정과 함께 체계적인 훈련을 하며 더 큰 무대를 준비하게 된다.

훈련은 주로 합숙으로 이루어졌다. 합숙 장소는 바로 손기정의 안암동 자택. 손기정은 집 앞에 '마라톤 선수 합숙소'라는 현판을 걸고, 서윤복을 비롯한 마라톤 유망주를 모아 직접 먹이고 재워가

성북문화 11호.indb 64 2024-02-18 오전 10:06:30



영화 〈1947 보스톤〉 스틸컷

며 함께 훈련하였는데 당시 상황은 아래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 … 후배들을 먹이고 재우며 훈련을 시킨 그 은혜는 또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후배들의 훈련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돌아다니며 모금 운동을 하신 것은 오직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
> 선생님은 한국 마라톤의 아버지이자 저희들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
> "조국을 위해 뛰어라!"
>
> … 불호령을 내리시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껄껄 웃으시며 등을 다독대시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
> — 중앙일보, "조국을 위해 뛰어라" 불호령이 그립습니다, 2002.11.16.

훈련 과정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냈던 서윤복은 1947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대표 마라토너로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였다. 대회의 출전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는데, 정부 수립 이전

성북문화 11호.indb 65 2024-02-18 오전 10:06:31

선생님은 한국 마라톤의 아버지이자
저희들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뛰어라!"
… 불호령을 내리시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었기에 미군정청에서 임시 여권을 받고 국내 여러 단체의 지원과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 보스턴으로 향할 수 있었다. 힘든 여정 끝에 대회에 참가한 서윤복 선수. 그 결과는 어땠을까?

서윤복 선수는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아시아인 최초로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헐렁해진 운동화 끈을 다시 묶을 겨를도 없이 운동화에 물을 뿌려가며 마지막까지 달린 결과였다. 서윤복 선수의 우승은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귀국 후에는 김구(金九) 선생으로부터 '발로 천하를 제패했다'는 뜻인 '족패천하(足覇天下)'라는 글을 선물 받기도 하였다. 그날의 값진 그의 금메달은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제51회 보스턴 마라톤대회 우승메달(출처: 문화재청)

성북문화 11호.indb 66 2024-02-18 오전 10:06:31

그가 이루어 낸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은 대한민국의 올림픽 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해방 이후,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는 조선올림픽위원회(KOC)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서윤복이 보여준 스포츠 역량을 통해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이는 국가 성립 이전이었음에도 IOC 가입을 성공시키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듬해인 1948년 런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그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모교인 숭문중학교에서 육상감독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보스턴 마라톤 대회 한국선수단 감독, 아시안게임 육상감독 그리고 올림픽 마라톤 코치로서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또한 1961년 서울운동장장, 1978년 대한체육회 이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및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한국단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육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스포츠영웅, 서윤복 선수는 2017년 6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마라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두 발에 담아 천하를 제패했던 서윤복, 그의 삶을 돌아보며 그가 흘린 땀방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고려대학교 박물관, 『보전 깃발이 날리는 곳에』, 고려대학교 박물관, 2022
손기정,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휴머니스트, 2022
성북마을아카이브, https://archive.sb.go.kr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1493&cid=43667&categoryId=43667
체육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58024&cid=42876&categoryId=42876
대한체육회 체육포털, https://portal.sports.or.kr/main.do

성북문화 11호.indb 67 2024-02-18 오전 10:06:31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역사 인물 2

형평사 운동 100주년과
서 광 훈

글 : 이승호(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 연구원)

>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양이라.
> 그래서 우리 등은 계급을 타파하며
>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 우리도 참 사람이 되기를 기함이 본사의 주지이다.



형평운동 포스터 1(출처 : 우리역사넷)

성북문화 11호.indb 68 2024-02-18 오전 10:06:31

1923년 4월 24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형평사(衡平社)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형평운동을 시작하였다. 자신들의 활동의 목적을 '계급을 타파하며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참 사람이 되기'라 밝힌 이들은 도축업자, 소위 '백정(白丁)'이었다.

백정이란 본래 고려시대에는 다른 특수한 직역을 지지 아니한 평범한 민호를 칭하는 호칭이었다. 하지만 조선 건국 이래로 이전부터 유기 가공 및 도살업에 종사하던 양수척(楊水尺), 화척(禾尺) 무리까지도 백정으로 받아들이려 하자, 본래 백정으로 불리던 이들은 양인, 상민 등으로 스스로를 부르며 새로이 백정이 된 이들과 거리를 두었다. 소위 신백정들도 이전의 유목생활을 고수하는 등 기존의 백정들에 동화되지 않았다. 그 결과 백정이라는 이름은 양수척과 화척을 비롯하여 도살업, 유기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들은 고려시대에 이어서 조선시대에도 천민 계층으로 취급되었다.

명목상 신분제가 폐지된 갑오개혁(甲午改革, 1894) 이후에도 천년 넘게 계속되던 차별대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신분상으로는 다 같은 사람이었으나, 여전히 호적에는 직업란에 도한(屠漢)이라 적거나 붉은 점을 찍는 등 도축업 종사자를 구분지었다. 그리고 그 구분에 따라 도축업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었다. 도축업자들은 여전히 '백정'이라 불리며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할 수 없었고, '백정의 자식'들은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도축업자들은 힘을 모아 형평사를 결성하고 형평운동을 시작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이에 빠르게 호응하였고, 형평사는 창립 1년 만에 전국에 12개 지사, 64개 분사를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형평사는 도축업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에 나섰다. 형평사의 활동은 백정에 대한 차별대우 발생시 조사단을 파견하고 피해 백정들을 지원하는 것부터, 야학, 강습소 활동 및 학교 설립 운동, 잡지 발간 및 공개강연을 통한 형평사원 계몽운동까지 다양한 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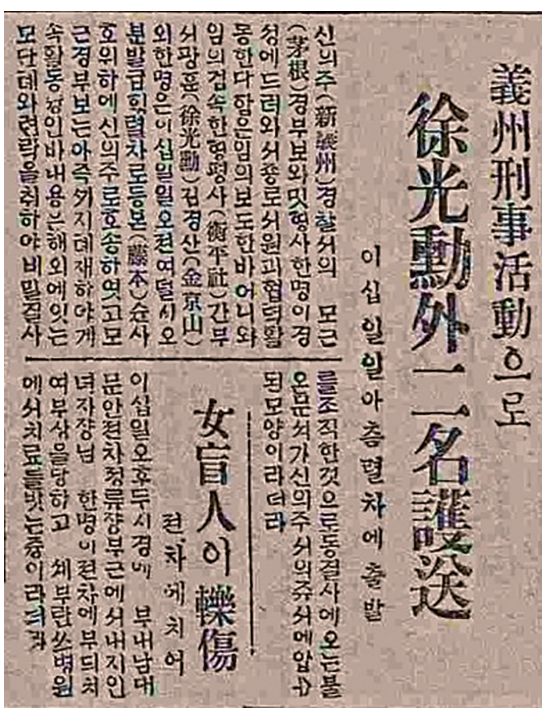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형평사 안팎으로 여러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형평사 안에서는 노선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처우 개선 및 축산업 관련 경제운동을 중시하는 이들과 사회주의 운동과의 결탁을 통해 계급해방 및 민족해방 운동으로 나아가려는 이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였다. 또한 밖으로는 민족을 넘어선 피차별집단간의 연계와, 사회와의 충돌이 계속되었다. 형평사는 한 편으로는 일본의 부락민들이 결성한 수평사(水平社)와 연대를 추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도축업자를 차별하고, 때로는 그들의 계층 상승에 대해 경계하는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과 거듭하여 충돌하였다.

도축업 종사자만 형평사 활동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사회운동가들이 평등을 위해, 이

성북문화 11호.indb 69 2024-02-18 오전 10:06:31



서광훈 사진(출처 : 『동아일보』 1933년 8월 2일)



義州刑事活動으로

徐光勳外一名護送

이십일일아츰열차에출발

신의주(新義州)경찰서의 모근
(茅根)경부보와밋형사한명이경
성에드러와서종로서원과협력활
동한다함은임의보도한바어니와
임의검속한영평사(衡平社)간부
서광훈(徐光勳)김경산(金京山)
외한명은이십일일오전여덜시오
분발급행렬차로등본(藤本)슌사
호의하에신의주로호송하엿고모
근경부보는아즉서지뎨재하야게
속활동중인바내용은해외에잇는
모단톄와련락을취하야비밀결사

를조직한것으로문동걸사에오는불
온문서가신의주서의쥬서에압수
되모양이라더라

女盲人이轢傷

련차에치여

이십일오후두시경에 부내남대
문안련차정류장부근에서내지인
녀자장님 한명이련차에부듸쳐
여부상을당하고 체부란쓰병원
에서치료들밧는중이라더라

1927년 1월 22일 『매일신보』 서광훈 검거기사(출처 : 공훈전자사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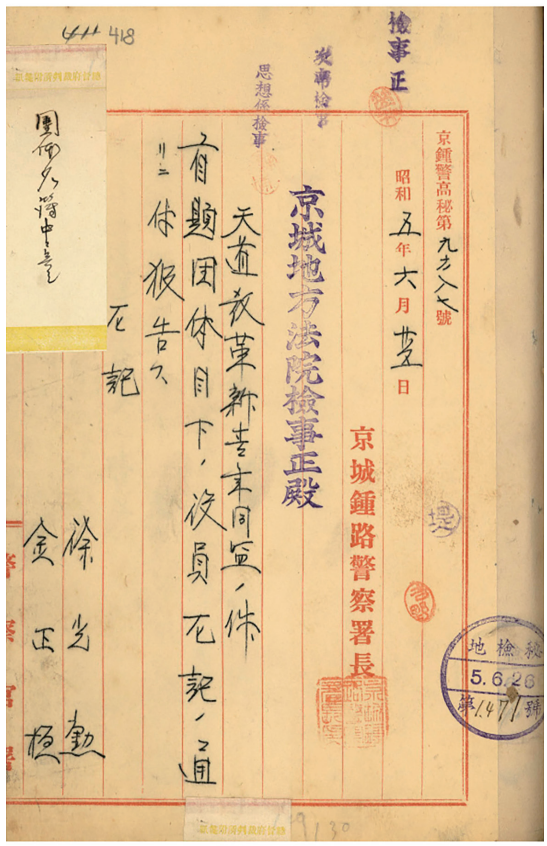
상을 위해 소외된 이들과 손을 잡고 연대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 중에 성북 사람 서광훈(徐光勳, 1901-1938)이 있었다.

서광훈은 1901년, 숭신방 동소문외계 성북동에서 태어났다. 어의동 공립보통학교(현 서울효제초등학교)와 오성학교(현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철원잠업전습소에서 수학하고, 평강면 면서기로 재직한 이후 운송점을 개업하였다가 성북리 삼산학교(현 성북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형평사 운동이 시작되던 1923년에는 성북구락부 창설에 참여하여 성북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자치조직 활동에 나섰다. 이후 성북구락부는 서광훈의 주도로 다양한 지역자치활동을 수행하였고, 연대와 협력을 위해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조직인 한양청년동맹에 가입하였다. 이 외에도 서광훈은 형평사 중앙본부 상무위원이었던 방인영(方麟榮, ?~?)과 함께 영화잡지 『시조』를 발간하기도 하고, 신간회 강릉지회에서 서기장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사회운동에 널리 참여하였다.

서광훈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몸담았던 운동은 바로 형평운동이었다. 서광훈은 형평운동 초기부터 정위단(正衛團) 총무, 형평본부 서기 등등의 직책을 역임하였고, 형평사의 중앙간부로 재임하며 사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다. 형평운동의 최전선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형평사원들의 의견을 널리 보도하였다. 이렇게 형평운동에 헌신하던 서광훈은 일제 당국과의 충돌로 여러 번 고초를 겪었다.

성북문화 11호.indb 70 2024-02-18 오전 10:06:32

경찰에서는 서광훈을 두고 "사회주의적 언사를 일삼고 형평운동에 관여하여 다른 사람들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며 경계하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를 검거하고 체포하려 하였다. 1925년에는 형평운동과 관련된 불온한 격문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종로경찰서에 두 번이나 소환되었고, 1927년 1월에는 장지필(張志弼, 1898~?)과 서광훈을 비롯한 형평사의 일부 간부가 천도교의 이동락(李東落, ?~?), 공산당의 이동휘(李東輝, 1878~1935) 등과 연대하여 혁명당 결성을 도모한, 이른바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1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1928년 10월에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으로 또다시 옥고를 치렀다.


京鍾警高秘第九六八〇號
昭和五年六月廿日
京城鍾路警察署長
京城地方法院檢事正殿
1930. 6. 25 발신 천도교혁신동맹 관련 종로경찰서 문서
(출처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1933년, 서광훈을 비롯한 41명의 형평사 사원들이 기소되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1929년부터 수년 동안 형평사 내에 사회주의 운동조직을 조직하고 형평사의 운동 방향을 사회주의 투쟁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될수록 연루된 인원은 늘어났다. 형평사 사원들의 검거로부터 시작된 사건은 1백여 명 이상이 연루된 대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검거된 이들 중 대다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나, 서광훈을 비롯한 14명은 최대 6년, 최소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서광훈은 3년 동안 계속된 재판 후에 1938년 3월 5일, 돈암동 514번지 자택에서 생을 마쳤다.

형평운동의 창립 취지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본사는 시대의 요구보다도 사회의 실정에 응하여 창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명백히 일천만 조선민족의 한 사람이라. 애정으로서 상호부조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공동의 보존책을 기약하고자 이에 40여만이 단결하여 본사의 목적, □□ 그 주지를 분명하게 내세우고자 한다."

성북문화 11호.indb 71 2024-02-18 오전 10:06:32



형평운동 포스터 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범제적 신분제가 철폐된 지 30년이 흐른 뒤에도 계급간의 차별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서광훈은 이를 바꾸기 위해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투쟁하였다.

서광훈은 주민자치운동, 계급해방운동, 그리고 민족독립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의 삶을 위해 헌신했다.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헌신하던 그의 삶은 어쩌면 능력이나 사상에 상관없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서로 도우며 차별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을까. 언젠가는 그가 꿈꾸던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펜을 내려놓는다.

참고문헌 |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user/index.d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성북마을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
『동아일보』
『조선일보』
김중섭 글, 김우태 사진, 『형평운동』, 지식산업사, 2014.
박수진·백외준·남기현·한봉석·김보라·김지은, 『성북동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성북문화원, 2015.
김영미, 「일제시기 도시문제와 지역주민운동 : 京城지역 성북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8, 2007.
박세경, 「1920년대 朝鮮과 日本의 身分解放運動 - 衡平社와 水平社를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硏究』 23, 2009.

성북문화 11호.indb 72 2024-02-18 오전 10:06:32

2023 성북문화원 소식

2023 주민기록단

글 : 우성진(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 2023년 주민기록단 활동 소개

올해로 6년을 맞이하는 주민기록단은 성북구를 주민들이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1년 동안 상반기 교육, 하반기 교육, 주민기록단 활동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성북문화원과 성북구청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2023년 주민기록단 상반기 교육은 4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7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었으며 지역사의 이해를 시작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법, 구술 인터뷰의 이해와 방법론, 인터뷰 실습, 구술자료의 정리와 보고서 작성법, 현장 실습 피드백 등 주민들이 성북구를 기록할 때 필요로 하는 이론과 기술들을 알려주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주민들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성북의 역사기록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반기 교육 포스터

2023년 주민기록단 하반기 교육은 8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수업내용은 구술사의 이해, 구술사 인터뷰 방법론, 구술사 인터뷰 질문지 작성, 구술자 인터뷰, 구술자료의 정리 및 녹취록 작성, 시각자료 모으기, 구술생애사 작성과 검증, 글쓰기 지면 구성 피드백으로 이루어졌다. 상반기와는 다르게 구술에 대한 수업 내용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후반기 교육은 구술 책자 발간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도 그에 맞게 구술생애사에 대한 심화교육과 더불어 실습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반기 교육에서는 지역사, 촬영, 구술 등 기록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하반기 교육에서는 구술에

성북문화 11호.indb 73 2024-02-18 오전 10:06:32



하반기 교육 포스터

집중하여 심화된 내용과 함께 실습을 통해 구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상반기, 하반기 교육 모두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구술사학회 이사이자 KBS <역사저널 그날>에 역사전문가 패널로 출연하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이 맡아주었다. 질 높은 강의로 주민기록단 수강생 대부분이 수업 설문 평가에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구술에 대한 전문가인 만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아주 알찬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주민기록단의 특별한 점은 단순 교육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성북구를 기록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주민기록단들은 성북구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2023년 4월 18일에 진행된 '2023 유공구민 표창 수여식'에서 주민기록단인 구정숙, 남명희 선생님이 표창을 수상하셨기 때문이다. 두 분께서는 성북구 주민기록단의 첫 정식 교육이 시작되었던 2019년부터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이론부터 실습까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제1기 기록가로 임명되어 꾸준히 활동을 진행하셨다. 우리 지역 토박이 분들을 인터뷰하고 녹취, 원고 작성을 통해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책자 발간에도 참여하였으며 또한 지역 내 오래된 가게, 재개발 지역 등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보고서와 사진으로 남겨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으로 유공구민으로 표창까지 수상하여 주민기록단으로서 활약을 인정받은 것이다.

2023년 6월에는 성북구 주민기록단 출범식이 성북구청 4층의 성북아트홀에서 진행되었고 주민기록단 교육 수료생 중 활동을 희망하는 20명의 단원이 정식으로 임명되어 기록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나누며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2023년 7월 13일에는 성북지역에 대한 이해와 활동을 위한 지식의 기반이 되는 강의를 진행했다. 바로 성북문화원이 진행한 「성북의 역사문화 및 재개발」이다.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재개발을 주제로 진행한 수업으로, 현장에서 아카이빙하는데 있어 필요한 성북구의 기본 지식들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되었다.

2023년 9월에는 주민기록단 활동가들을 모아 성북동의 역사 문화자원인 길상사-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본원-이태준 가옥(수연산방)-이종석 별장-심우장을 탐방하며 성북동의 역사를 배우고 지역

성북문화 11호.indb 74 2024-02-18 오전 10:06:33

을 기록하는 식견을 기를 수 있는 탐방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성북구의 이해를 더하고 앞으로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동가 탐방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023년에도 발간되는『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는 하반기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이 직접 구술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일이다. 올해의 구술자는 장위동의 박순자 선생님과 월곡동의 박두순 선생님으로 두 분 모두 성북구가 고향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서울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살고 계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8월에 첫 만남을 시작으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살아온 삶과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당시 성북구의 상황과 그들의 삶에 녹아있는 역사의 줄기에 대해 듣고 기록하며 성북구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주민기록단 사업은 다양한 활동과 그에 맞는 성과를 거둔 해이다. 그간 주민기록단은 수료자들을 배출하는 것과 수업의 미비점을 보완했다면, 올해는 수료자들의 활동가로서의 활동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키우는데 집중해서 한층 더 내실을 다지고 성북구의 기록을 남기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표창 수상과 참여자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한 해가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기록단은 현장과 주민을 최우선으로 한 교육과 활동을 연계할 예정이다.

♣ 주민기록단이 되려면?

매년 성북문화원에서 진행하는「주민기록단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주민기록단'의 일원으로 성북문화원과 함께 마을 기록 수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 실습을 거쳐 이론을 배우고, 이론을 토대로 활동하여 수집한 기록물들은 성북구의 자산이 되며 성북마을아카이브에 선별 및 게재된다. 성북구와 기록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기록학에 대한 이해와 성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함께 성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 주민기록단 주요 활동 사진



2023 성북구 주민기록단 출범식



상반기 교육

성북문화 11호.indb 75 2024-02-18 오전 10:06:34



주민기록단 유공구민표창



상반기 교육



주민기록단 활동, 현장 답사



하반기 교육



주민기록단 활동, 현장 답사

성북문화 11호.indb 76 2024-02-18 오전 10:0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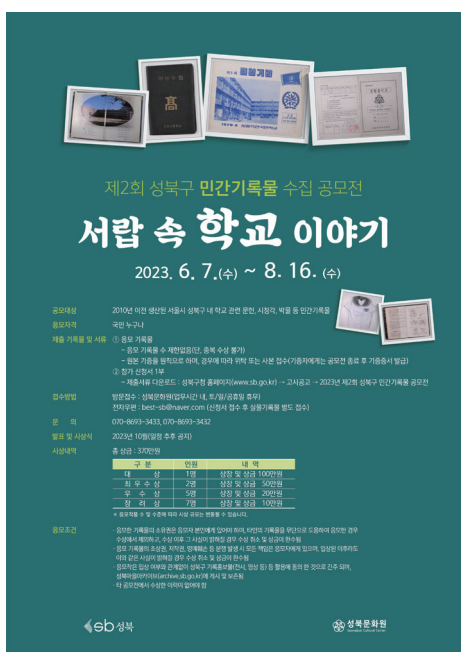
2023 성북문화원 소식

제2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 제3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글: 장지희(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청과 함께 지역의 이야기와 기록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수집하며 성북구의 흩어진 기록을 한 데 모은 디지털 아카이브인 성북마을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소소한 생활과 성북의 변천사를 담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는 <제1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우리의 기억, 성북의 기록으로'라는 주제로 약 4개월간 진행된 공모전에서 360여 점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기록물이 접수되며 큰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고, <제1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를 통해 그 결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였다. 이처럼 성북구민들의 삶과 일상을 담고 있는 기록을 수집하게 해주었던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의 장이 올여름, 다시 한번 펼쳐졌다.

현재 성북구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60여 곳이 넘는 학교들이 있으며, 폐교되거나 이전한 곳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학교가 지역의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다. 이 학교를 거쳐 갔던 성북구민들은 학교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제각기 간직하고 있다. <제2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은 성북구 내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 발굴을 위해 '서랍 속 학교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공모전 소식을 접한 구민들은 책상 서랍, 장롱 안 혹은 선반 위 등 집 안 어딘가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학창 시절의 추억을 꺼내어 공모전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약 2달의 기간 동안 694점의 민간기록물이 접수되었다. 그들이 간직한 학교 관련 이야기들은 졸업앨범이나 일기장, 상장, 교복, 생활통지표 그리고 수많은 사진과 물건 속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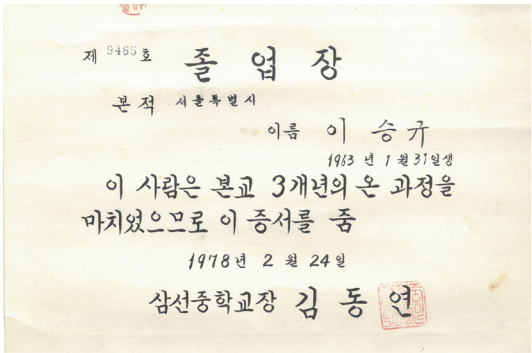


<제2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포스터

성북문화 11호.indb 77 2024-02-18 오전 10:0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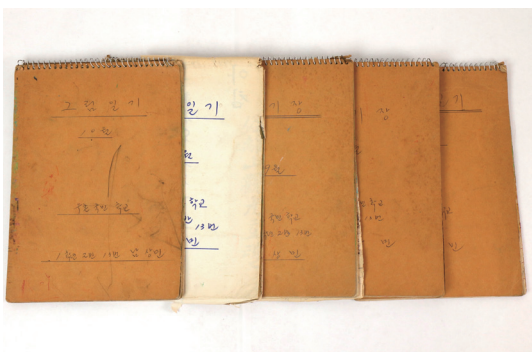
삼선국민학교 졸업앨범(1968)



삼선중학교 졸업장(1978)



경동고등학교 벨트 버클(1980년대)



우촌초등학교 재학시절 일기장(1980년대)



정릉동 영화유치원 가을운동회(1981)



우촌초등학교 메달(1988)

수집된 기록물의 연대는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각자가 간직한 추억만큼이나 다양했다. 정릉동 영화유치원, 우촌초등학교, 북악중학교 재학시절 사진, 졸업앨범, 상장, 메달, 교지, 반장·부반장 견장, 졸업기념 열쇠고리, 일기를 포함한 기록물부터 성북초등학교, 삼선중학교의 졸업앨범, 경동고등학교의 명찰, 학생증, 생활통지표, 벨트 버클, 대입 시험 수험표 및 통지서 등도 수집되었고, 월곡

성북문화 11호.indb 78 2024-02-18 오전 10:06:41



성신초등학교 교지(1995)



〈제2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상식

4동 산동네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던 어머니학교의 글 모음집과 이수증 등의 기록물도 기증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학교의 역사를 담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들이 수집되어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록물들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평가를 받았고, 심사를 통해 총 30명의 참여자 중 15명이 수상하기도 하였다.

지역 내 학교들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록들은 〈제3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를 통해 주민들과도 공유되었다. 10월의 마지막 날부터 열흘 동안 서울·성북 미디어 문화마루에서 진행된 전시에서는 공모전 출품작 중 약 160여 점의 실물 기록물을 선정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선보였으며, 패널에 펼쳐진 성북구 지도 이미지 위에 관내 학교의 위치를 표시하고 자료들의 이미지를 학교별로 정리하여 배치하였다. 그리고 기록물을 출품한 주민들에게 공모전에 참여하며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한 코멘트를 받아 소감을 나눌 수 있도록 '서랍 속 추억들을 꺼내며' 패널을 구성하였다.



〈제3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포스터

참여자들은 이번 공모전이 단순히 학창 시절의 추억을 넘어 어린 시절의 기억과 가족들 간의 따뜻했던

성북문화 11호.indb 79 2024-02-18 오전 10:06:43




〈제3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기록물





〈제3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전경



'성북구 학교와 추억들' 패널을 관람 중인 구민

성북문화 11호.indb 80 2024-02-18 오전 10:06:46

순간을 떠올리며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음을 이야기했고, '학교'라는 주제 안에서 기록물을 통해 과거의 시간과 역사를 현세대에게 전하고 공유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전시에서는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든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주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북마을아카이브에 대한 설명과 구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화하여 소개했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구동해 볼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마련해두었다. 또한 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과 기록물 수집과 생산 등 지난 성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기록 수집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북구 주민기록단에 관한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주민기록단의 역할과 함께 직접 진행했던 기록 활동 내용도 일부 만나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시를 관람한 구민들의 반응도 좋았다. 삼삼오오 함께 모여 잠시 각자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과거의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며 이번 전시는 누군가의 추억을 통해 또 다른 추억이 공유되고 전해지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성북문화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를 형성하고 계속해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상과 삶 속에 녹아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역의 기록자원으로 보존하며, 이를 활용한 콘텐츠로 여러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성북문화 11호.indb 81 2024-02-18 오전 10:06:46

2023 성북문화원 행사

성북동 문화재야행

글 : 계민우(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 연구원)



2023년 09월 22일(금) ~ 23일(토) 성북동 일대에서 성북구청(구청장 이승로)이 주최하고 성북문화원(원장 김영일)이 주관한 성북동문화재야행이 진행되었다. 성북동문화재야행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성북구의 대표 문화행사이다.

어느덧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성북동문화재야행 행사를 찾아주었다. 이번 2023 성북동문화재야행의 주제는 '문학과 예술로 이어지는 성북의 밤'으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문화재가 어우러진 성북동에 얽힌 수많은 사람과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내었다. 이를 통해 성북동문화재야행은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그에 얽힌 이야기로 밤을 밝힌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로 거듭났다.

성북동문화재야행 메인거리



성북동문화재야행 개막식 선언

이번 개막식에는 성북구청장 및 여러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고 메인무대에서 내빈들의 개막 퍼포먼스로 성북동문화재야행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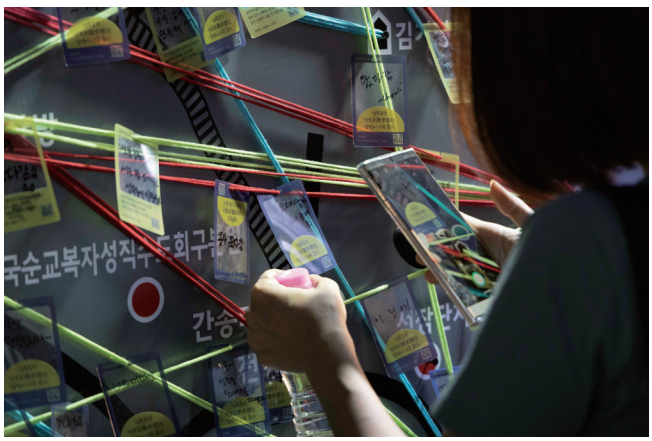
2023 성북동문화재야행에서는 '8야'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었는데, 8야는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으로 이루어졌다.

야경은 '한 밤의 성북동(문화재 야간개방)'과 '우리를 이어줄 밤(문예인 방명록)'으로 이루어졌다. '한 밤의 성북동'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6곳의 문화재(심우장, 최순우옛집, 이종석 별장,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본원, 한양도성, 선잠단지)를 야간에 개방하였고, 6곳의 문화시설(성북선잠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예향재, 성북역사문화센터, 뮤지엄웨이브, 성북역사문화공원) 또한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하였다. '우리를 이어줄 밤'에서는 성북동 아카이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본원

성북문화 11호.indb 83 2024-02-18 오전 10:06:53



우리를 이어줄 밤 (문예인 방명록)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성북동에 거주했던 근현대 문예인 네트워크를 소개하였다. 시민들은 성북동에 거주했던 문예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들의 작품을 읽어보고 방명록을 남기는 시간을 가졌다.

야로는 '성북전차', '밤손님이 나타났다', '크리미널 마인', '플로깅'이 진행되었다. '성북전차'는 1941년 성북동에 개통되었던 전차를 모티브로 한 셔틀버스로,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북동의 문화재 및 문화시설 사이를 오가며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고, 차내에서 문화재 및 문화시설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중대하기 위해 5대의 버스로 총 8개의 정류장을 운행하였는데 ①한성대입구역, ②메인거리, ③선잠단지 & 최순우옛집, ④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본원 & 이종석 별장, ⑤예향재, ⑥심우장 ⑦성북역사문화센터 ⑧우리옛돌박물관을 운행했다. '밤손님이 나타났다'와 '크리미널 마인'은 성북동의 독립운동가 및 문학인을 활용한 게임형 체험프로그램으로,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에서 준비하였다. 사전 예약부터 이미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 인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며 크게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와 동시에 플로깅 프로그램인 '우리의 작은 실천'도 진행되었다. 플로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행사 기간 중 성북동 일대의 쓰레기를 정리해 준 시민들 덕분에 성북동문화재야행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크리미널 마인(魔人)

성북문화 11호.indb 84 2024-02-18 오전 10:06:58



메인무대 공연



성북역사문화공원 공연



버스킹 무대

야설은 성북극장 역사 인물극 및 공연이 진행되었다. 성북극장은 문화재별로 1명의 역사속 인물들이 상주하며 1인극을 통해 문화재 및 그와 관련된 역사를 소개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선잠단지, 심우장, 이종석별장, 한양도성에서 진행되었다.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인물들은 시민들이 성북동의 문화재들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몰입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다음으로 행사의 꽃인 공연무대에서는 성북국악협회의 대표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이건자 선생님과 성북국악협회의 공연,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보유자 조영숙 명인의 발탈 공연, 댄스아트라인 김문경 연출의 작품인 '달빛 아래 머물다', 성북문화예술공연연합회의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성북공감예술단의 연희극, 동덕여대 학생들의 K-POP부터 재즈까지 아우르는 버스킹 공연, 그리고 극단 더늠의 아나키스트의 아내 낭독극과 극단 맥토의 '밤길', '달밤' 낭독극까지 다양한 공연이 메인무대와, 버스킹무대, 성북역사문화공원을 뜨겁게 달궜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야사는 '설레는 성북동의 밤', '모던한 성북거리', 그리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설레는 성북동의 밤'은 성북동 및 한양도성 일대를 거닐면서 문화재 및 지역에 관련된 해설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성북구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운영했다. '모던한 성북거리'는 메인거리에서 진행된 행사

성북문화 11호.indb 85 2024-02-18 오전 10:07:02



설레는 성북동의 밤



선잠박물관 앞 체험부스

로 액자 형태의 포토존 속에 문화재의 모습을 담아내어 성북동문화재야행의 기억을 담아낸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게 하였다. 체험프로그램은 성북동의 문화예술기관에서 함께했다. 우리옛돌박물관은 '복작복작 아트램프 만들기', 예향재에서는 '버선향낭 만들기'와 '전통놀이', '서예캘리엽서써주기', 성북선잠박물관에서는 '잠이 인형 만들기', 성북미술협회에서는 '비단부채 만들기', '도자체험', 성북주민자치회에서는 '캘리그래피 종이 등 만들기', 'VR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성북 아뜰리에

야화는 '성북 아뜰리에' 및 '성북회화연구소'가 진행되었다. '성북아뜰리에'는 성북미술협회와 한성대학교 예술학부 동양화, 서양화 전공이 협업하여 진행한 전시 및 아트페어이다. '성북회화연구소'는 방문객들을 근대적 복식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주는 컨셉 캐리커쳐 프로그램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성북 아뜰리에'와 '성북회화연구소'를 통해 성북의 역사를 알리고 아름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야시는 '밤의 장터 플리마켓', '성북장터' 및 '문학 자판기'로 플리마켓과 성북장터에서 지역 상인들이 책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였다. 또 야경 프로그램 '우리를 이어줄 밤' 옆에는 문학자판

성북문화 11호.indb 86 2024-02-18 오전 10:0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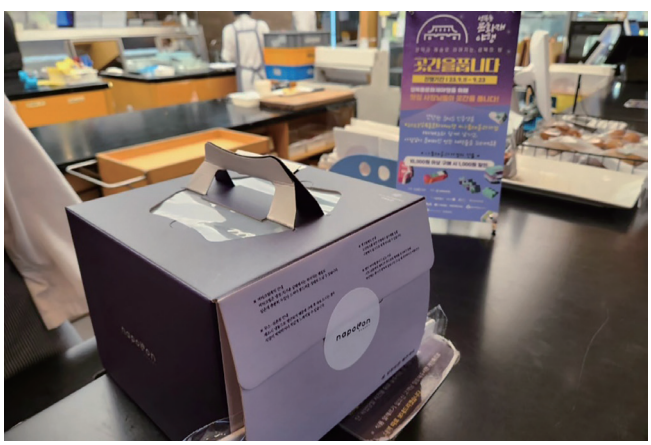


문학 자판기



플리마켓 '밤의 장터'

기가 설치되어 마음에 드는 성북동 문인들의 작품 속 한 글귀를 함께 읽는 장을 마련하였다.



곳간을 풉니다. (나폴레옹 과자점)

야식은 '곳간을 풉니다', '성북에서 뭐 먹지?', '성북 찻집'이 진행되었다. '곳간을 풉니다'는 행사기간 중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여상점 방문 시 #2023성북동문화재야행 #가게명을 태그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경우 상점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참여상점은 해로커피, 카페호비, 러스틱, 오스테리아, 카페잇트, 카페 256, 나폴레옹 과자점, 카페 일상이 참여하였다. '성북에서 뭐 먹지?'는 성북동 내의 여러 음식점/카페를 맛집 소개 형태의 카드뉴스로 소개하여 성북동문화재야행 기간동안 찾아온 성북구민 및 외부 손님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가게들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성북 찻집'은 성북역사문화센터에서 성북동문화재야행 설문조사를 작성해주신 시민들에게 뽕잎차 티백 만들기 키트를 증정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준비한 뽕잎차 티백 만들기 키트가 야행기간 동안 모두 소진되었다.

마지막으로 야숙은 '엮어보기', '후기를 부탁해' 이벤트와 '성북에서의 하룻밤'이 진행되었다. '엮어보기'는 일상에서 찾은 글자를 이어 붙여 성북동과 어울리는 문장을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업로드하

성북문화 11호.indb 87 2024-02-18 오전 10:07:10



후기를 부탁해



엮어보기

는 이벤트로 선착순 100명에게 성북동문화재야행 마스킹 테이프를 증정했다. '후기를 부탁해'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SNS에 올린 후기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 소리잔(2p)을 증정하는 이벤트였다. '성북에서의 하룻밤'은 성북동문화재야행을 보러 성북동에 오신 분들의 쾌적한 숙박을 위해 성북동 내의 숙박업소를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 후 스텝 단체사진

행사 2일 동안 약 2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였고, 특히 이번 성북동문화재야행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슈필렌과 함께 기획 및 제작 하였으며 큰 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방문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문화유산 야행으로 다채롭고 풍성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성북문화 11호.indb 88 2024-02-18 오전 10:07:12

2023 성북문화원 소식

제6회 성북학 학술회의 ‘경계를 넘어 : 지역학의 교류와 성장’을 돌아보며

글 : 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지난 2019년 시작된 성북 지역 유일무이한 지역학 학술행사인 성북학 학술회의가 어느덧 여섯 번째를 맞이하였다. 지역학이라는 이름도, 학문적 성격도 무척 생소하지만 우리 성북 지역만의 특색을 찾고 이를 밝혀내기 위한 행사였다. 다만 매년 성북학 학술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지역학’의 정의와 확장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계를 넘어 : 지역학의 교류와 성장」 포스터

2022년, 작년에 진행한 제4회 성북학 학술회의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기존 성북학 연구가 지속적으로 다루어 온 역사학 분야 이외에도 성북 지역의 박물관과 도서관이 가진 역할, 우리 지역 사회적 경제, 우리 지역의 교육 등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이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지역학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지역학의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경계의 확장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제5회 성북학 학술회의 「성북구의 도시개발과 주민 이야기」에서는 학자들 이외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들이 직접 조사한 성북구 도시개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역학의 경계를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성북학이라는 지역학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았고, 또 이 경계에 한계를 두지 않고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의 사례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다른 지역에서 지역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성북학이 나아갈 방향도 조금은 뚜렷해지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성북문화 11호.indb 89 2024-02-18 오전 10:07:12

제6회 성북학 학술회의는 이러한 의문과 기대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성북문화원과 함께 지역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던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인문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평소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와 학술교류 관계를 맺어온 일본 교토부립대학의 연구자들도 발표자로 참여하여 일본 교토부에서의 지역학 연구 사례를 이야기해주었다.

더불어 지역학을 역사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새로운 시선으로 읽는 지역학'이라는 주제 아래 마을미디어 속에서 지역학을 활용하는 사례, 그리고 지역학을 활용한 축제에 관한 소주제 발표도 진행하였다. 소주제의 첫 번째 섹션 '마을미디어 속 지역학'에서는 일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지역의 마을미디어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협력하고 제작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김준용 대표는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연혁과 우리 성북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마을미디어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성북동사람들의마을이야기」 차정미 전 편집장은 지금껏 발간해 온 마을잡지 「성북동사람들의마을이야기」의 연혁을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이와 함께 마을잡지를 발간하기 위해 모인 주민들의 모임 「성북동천」의 구조도 들려주었다. 나아가 마을잡지를 통한 주민간 소통 및 연결 사례를 소개해주는 한편 필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암동 주민자치회 정미림 분과위원은 종암동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제작한 마을소식지 「너나들이」의 기획부터 제작 과정까지를 상세히 들려주며 지역주민간의 소통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이야기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짐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세 가지 발표가 저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므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예산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토론에는 축제라이브 방송 성동주 대표와 성북구청 홍보전산과 박수진 계장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교류, 협력의 중



소주제 섹션1. 마을미디어 속 지역학 발표



소주제 섹션1. 마을미디어 속 지역학 토론

성북문화 11호.indb 90 2024-02-18 오전 10:07:15

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향후 마을미디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여 청중의 공감을 샀다.

소주제의 두 번째 섹션 '지역학 활용, 축제와 사람들'에서는 지역학을 활용한 축제를 현장에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온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성북동 문화재 야행'의 기획·운영을 맡은 성북문화원 박수진 부장은 축제가 갖는 의미, 그리고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성북구 및 성북문화원의 시도를 소개한 후 앞으로 성북구 지역축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성북구 연극축제 '더운데 산책갈까'를 진행한 성북연극협회 주용필 협회장은 지역만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시민과 지역단체들의 시도를 공유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문관 박명아 이사는 타지역 사례로 성주시의 '성주생명문화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축제기획 사례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보완점 등에 대해 발표하며 축제는 단순한 개념 전달이 아니라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험의 장임을 역설하였다.

세 발표 모두 지역 축제가 갖는 의미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 의미를 찾는 과정 속에 지역학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한 토론에는 서산해미읍성축제 손형채 총감독과 인천문화원연합회 김성준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적 특색과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유·무형자산을 활용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축제 기획과 운영에서 중요한 지점, 또한 현장에서 직접 축제를 진행하며 느낀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대주제 발표 '한일 지역학 연구사례를 통한 성북학의 발전과 전망'이 이어졌다. 여기에서는 일본 교토부립대와 한성대, 그리고 성북문화원에서 행한 다양한 지역학 연구사례에 대하여 여섯 가지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교토부립대학의 지역연구 - 교토학과 단고(丹後)학'으로 교토부립대학의 히시다 테츠오(菱田哲郎) 문학부장이 발표하였다. 히시다 문학부장은 교토부립대학에서 진행한 교토부 내의 '단고 지역'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면서, 단고 지역에 대한 민속학·고고학 연구를 통한 고대 일본의



소주제 섹션2. 지역학 활용, 축제와 사람들 발표



소주제 섹션2. 지역학 활용, 축제와 사람들 토론

성북문화 11호.indb 91 2024-02-18 오전 10:07:17




교토부립대 히시다 테츠오(菱田哲郎) 문학부장 발표

주조(酒造) 문화와 이것이 한반도와 갖는 연관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고분을 지역자원화 하다 - 유부네자카(湯舟坂)프로젝트의 궤적과 전망'으로, 교토부립대학 역사학과 이사하야 나오토(諫早直人) 교수가 발표해주었다. 이사하야 교수는 발표를 통해서 교토부 교탄고시 구미하마정 스다구에 소재한 '유부네자카 고분'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이를 어떻게 지역자원으로서의 발전시켜 활용하였는지 이야기해주었다. 특히 이사하야 교수는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연구·문화자원화·관광자원화가 서로 긴밀하게 이어지므로, 학술연구에 그치지 않고 연구의 성과를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지역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교토부립대학 역사학과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 교수가 '교토부립대학 역사학과의 단고 지역 연구사례 - 교토안의 한일관계'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노우에 교수는 역사문헌 속에서 등장하는 '단고'를 통한 한일간의 교류 양상을 분석·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로 9세기~11




교토부립대 이사하야 나오토(諫早直人) 교수 발표

성북문화 11호.indb 92 2024-02-18 오전 10:07:20




교토부립대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 교수 발표





한성대 조규태 교수 발표

세기에 있었던 단고 지역의 외국 선박 표착기사들을 소개하며 단고 지방을 거친 한일간 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뒤이어 발해 멸망 이후 동란국(東丹國)의 사절로 일본에 온 배구(裴璆)의 일화를 통해 단고를 거친 한일간 교류가 존재하였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야츠시 치온지(知音寺)에 소재한 고려제 쇠북과, 『해동제국기』의 기록을 통해 한반도에서 쓰시마, 잇키를 거쳐 단고까지 이어지는 동해 해상교통로의 존재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러한 교류 양상에 또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사실이라며, 지역의 연구가 선제적 요소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네 번째로는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조규태 교수가 '20세기 초 성북지역 삼산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삼산학교의 역사를 구한말 삼산학교의 설립 과정, 일제강점기 시작 전후 황수연에 의한 삼산의숙 운영 양상, 그리고 황수연이 사망한 후 삼산의숙이 삼산학교로 변모하여 나가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다섯 번째로 '서울지역 문화유산 활용의 실제 - 고대 성곽 유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윤성호 교수가 발표해주었다. 발표를 통해 윤성호 교수는 서울 각지에 소재한 고

성북문화 11호.indb 93 2024-02-18 오전 10:07:24




한성대 윤성호 교수 발표

대 성곽 유적을 소개하며, 이러한 유적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유산 사업의 현황을 함께 알려주었다. 나아가 성곽유산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의 보급과 개별 유적의 역사적 의미에 근거한 명확한 서사 확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체계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여섯 번째는 성북문화원 백외준 연구과장과 이승호 성북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발표하였다. 주제는 '유럽 도시들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사례 고찰'이었다. 해당 발표에서는 유럽 각지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관광·도시재생·에코뮤지엄·공동체 아카이브 등의 개별 사례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효용성 및 각각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여섯 가지 주제의 발표가 마무리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박근칠 교수가 좌장으로 이끈 종합토론에서는 토론자와 발표자, 청중 간 다양한 의견의 소개 및 교환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토론자로는 성북문화원 강성봉 사무국장,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윤용선 교수, 고려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정순일 교수, 불교문화재연구소 임석규 수석연구관,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이규철 교수가 참석하였다. 토론자들은 각각 연구에 대해 중요한 연구였음을 밝히며 그 성과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여러 질문과 의문을 던졌다.

먼저 정순일 교수는 지역학의 발전에 있어 지역 학술기관과 역사문화자원의 연계가 필요함을 거론하며 교토부립대학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이에 이사하야 교수가 도시와 지방의 재원 및 인력, 접근성의 차이로 인하여 역사문화자원 활용 양상이 달라짐을 거론하며,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서 중요한 것은 학술기관, 행정기관, 시민사회 간의 협력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이규철 교수는 성곽 유적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개별 유적의 특수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에 윤성호 교수는 충분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임석규 수석연구관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로 하여금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북문화 11호.indb 94 2024-02-18 오전 10:07:25



성북문화원 백외준 연구과장 발표



성북문화원 이승호 성북학연구원 발표









종합토론

뒤이어 강성봉 사무국장은 조규태 교수의 발표에 대하여 삼산의숙에서 삼산학교까지의 과정을 살폈는데, 삼산학교가 현재 성북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흐름과 더불어 해방 이후 지역 교육사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해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조규태 교수 또한 동의하며 역

성북문화 11호.indb 95 2024-02-18 오전 10:07:31

사 연구에 있어서 타자와의 교류와 거시적 흐름 속의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용선 교수는 한국에서 유럽과 같이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도시재생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지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백외준 연구과장은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학 모델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진행된 제6회 성북학 학술회의는 막을 내렸다. 마을미디어와 축제라는 지역학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주제 발표부터, 성북 지역 이외에도 서울 전역에 있는 문화유산 활용사례, 유럽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 교토의 교육기관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연구하고 이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 지역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한국 사회에 큰 시사점이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성북학은 아직 쉽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성북이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948년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공간의 범위가 계속 변화하였기에 결국 공간적 범주는 현재 행정구역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연구는 필수적이며, 또 실제로 일부 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도시 개발과 이주와 정주, 전통의 계승과 단절 등 수많은 변화 속에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화가 어떠한 상호 작용을 거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해야 할 것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성북학이자 성북학 학술회의이다. 지역의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 또 이를 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북학 학술회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제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 학술회의에서는 경계가 어디인지 확인하였고, 이 경계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금년 학술회의에서는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내년 학술회의에서는? 다같이 기대해보자.



제6회 성북학 학술회의「경계를 넘어 : 지역학의 교류와 성장」단체사진

성북문화 11호.indb 96 2024-02-18 오전 10:07:32

2023 성북문화원 소식

2023 일반회원 역사문화탐방
'정조의 소망이 담긴 도시, 수원'

글 : 최정아·이우경(성북문화원 문화교육사업팀)
사진 : 김지훈·장지희(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 人人和樂), 집집마다 부유하고 사람마다 서로 화합해야 한다.' 조선 정조의 이상이 함축된 글귀처럼, 수원에는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되기를 바랐던 그의 소망이 담겨 있는 듯하다. 한반도 중앙에 자리한 수원은 조선시대 정조가 세운 수원화성을 바탕으로 발달해 왔다. 과거의 성곽도시이자 계획된 신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는 이번 역사문화탐방에서 수원팔경의 일부인 화홍문, 방화수류정을 유람하고 옛날 정조의 능행처럼 화성행궁, 용주사, 융건릉을 탐방하러 수원으로 향했다.

수원화성과 수원천이 만나는 곳: 화홍문·방화수류정

처음 도착한 곳은 화홍문이다. 화홍문은 수원화성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수원천과 북쪽 성벽이 만나는 곳에 설치된 수문으로, 북쪽에 있어서 북수문이라고도 한다. 화홍문 아래 수문으로 넘쳐흐르는 시원한 물보라가 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듯하다. 7개의 무지개 모양의 수문이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낸다. 수원천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언덕으로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북수문 안내문 앞에서



방화수류정 오르는 언덕길

성북문화 11호.indb 97 2024-02-18 오전 10:07:33



방화수류정에서 경관을 살피는 회원들



방화수류정의 연못(용연)



방화수류정 해설을 듣는 회원들



방화수류정 앞에서 단체사진

화홍문을 지나 방화수류정에 다다랐다. 방화수류정은 수원화성의 네 개의 각루 중 동북각루의 이름이다.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소이자, 동시에 경치를 위에서 아래로 조망할 수 있는 정자이기도 하다. 사방을 살필 수 있는 돌출된 건물구조로 군사적 목적에 충실했음을 가늠해본다. 연못(용연)이 운치를 더하며 수원화성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방화수류의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 노닌다'는 뜻처럼 주변 경관과 뛰어난 조화를 이루는 듯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행궁

다음 탐방지는 수원화성행궁이다(사적). 행궁은 왕이 궁궐 밖에서 임시로 머무는 궁궐을 뜻하는데, 정조가 화성에 방문할 때마다 머물기 위해 이곳을 지었다. 화성행궁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와 격식을 자랑한다. 웅장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서 정조가 여러 가지 행사를 열기도 했다.

화성행궁의 정문 신풍루는 '임금님의 새로운 고향'이라는 뜻이다. 수원화성에서 고향처럼 머물고 싶어 했던 정조의 마음이 엿보이는 듯하다. 문화원 선생님들이 화성행궁의 역사와 의미를 해설해주

성북문화 11호.indb 98 2024-02-18 오전 10:07:37



수원 화성행궁에서 해설을 듣는 회원들



수원 화성행궁 남군영에서

니 모두들 옹기종기 모여 귀를 기울였다.

화성이 지어지기까지: 수원화성박물관

화성행궁에서 탐방한 후 도보로 5분가량 이동했다. 이곳은 수원화성의 우수성과 정조의 개혁 정신을 알리고자 설립된 수원화성박물관이다. 화성축성실에는 정조와 사도세자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서 화성 축성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화성축성실에서 화성축성의 과정과 신도시 수원 건설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화성문화실에서 화성행차와 정조 친위부대 장용영의 위상을 알아볼 수 있다. 회원들은 삼삼오오 짝지어 다니며 전시품을 구경했다.

박물관의 야외로 나서면 또 다른 전시공간이 펼쳐진다. 정조와 수원화성관련 유물의 복제품들이다. 정조의 태실 및 태실비부터 수원화성 축성에 사용된 거중기, 녹로, 유형거까지 실제 크기로 복제하여 관람할 수 있다. 18세기 조선의 과학문명을 생생하게 만나보는 듯하다.



수원화성박물관 영상자료 시청



수원화성박물관 모형지도 관람

성북문화 11호.indb 99 2024-02-18 오전 10:07:40

정조의 효심, 아버지를 기리며: 용주사

든든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용주사에 들어섰다. 시내의 소음이 숲에 가리어지며, 이곳만의 장엄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정조가 아버지의 능을 지키고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이다. 절을 완공하기 전,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고 하여 용주사라 이름 지었다.

용주사는 특별한 사연만큼이나 일반 사찰과 차이가 두드러진다. 용주사를 흔히 '대궐 같은 사찰'이라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궁궐의 형태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 건물이 정교하게 좌우대칭을 이루면서 각 공간은 정갈하게 나뉘어져있다. 궁궐의 양식뿐만 아니라, 유교의 나라 조선시대 왕이 직접 세운 절이라는 점에서 이곳을 걷고 있노라면 권위가 서있는 느낌이 든다.



용주사로 향하는 회원들



용주사에서 해설을 듣는 회원들



용주사 대웅보전을 관람하는 회원들



용주사의 연등

성북문화 11호.indb 100 2024-02-18 오전 10:07:45

아버지와 아들의 릉: 융릉·건릉

용주사에서 가까운 거리에 마지막 탐방지 융건릉이 있다(사적 제206호). 2009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한쪽은 융릉, 다른 쪽은 건릉으로 향한다. 융릉은 사도세자로 알려진 장조와 헌경왕후의 합장 무덤이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존호를 올리고 화성으로 묘역을 옮기면서 조성되었다. 건릉은 정조와 효의황후 김씨의 합장 무덤이다. 난간석을 두르거나 연지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나 융릉의 양식을 따라서 유사하다.

세자의 묘인 융릉과 왕릉인 건릉은 융건릉이라 합쳐 불릴 만큼 가깝다. 생전 아버지 묘 주변에서 능 자리를 살피며,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곁에 남고자 했던 정조의 유언이 깃들어 있는 듯하다. 회원들은 애틋한 마음을 느끼며 너른 잔디밭과 나무 숲길을 거닐었다.

정조의 역사탐방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마음, 부모를 향한 아들의 효심이 한데 섞여있는 수원. 사람을 향한 마음을 뒤로 한 채 탐방을 마쳤다.



융건릉 안내문 앞에서



융건릉 해설을 듣는 회원들



김주미 선생님의 해설을 듣는 회원들



융건릉 잔디밭에서 단체사진

성북문화 11호.indb 101 2024-02-18 오전 10:0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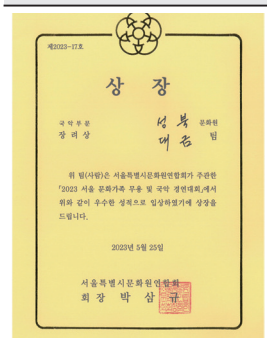
2023년도 외부 경연대회 수상 회원

2023년에도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자기계발을 실현하는 성북문화원 수강생들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각종 외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수강생들이 기쁜 수상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강사와 끊임없이 실력을 갈고 닦은 수강생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강좌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펼쳐나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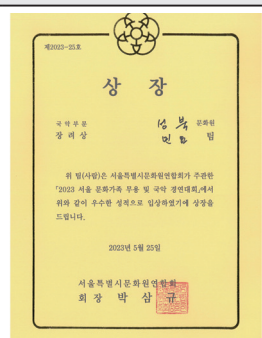
구분	강좌	성명	수상 내역
수강생	경기민요	김계숙·김병수 김윤연·최윤정 권영목·김경희 이주연	2023 서울문화가족 무용 및 국악 경연대회 국악부문 장려상
	대금	김희석·박승재 권영필·전병기 송병은·조현우 강신규·김재선 김미영·이정윤	2023 서울문화가족 무용 및 국악 경연대회 국악부문 장려상
	문인화	김진수	2023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최우수상
	민화 전통채색	강선희	제3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장려상
		구희숙	제3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
		길윤경	제3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
			제11회 현대미술 작은그림 축전 단원상
			제16회 대한민국 민화 공모대전 입선
			제24회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노경애	제3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
		성미나	제16회 대한민국 민화 공모대전 특선
		이영주	제16회 대한민국 민화 공모대전 입선
			제37회 대한민국회화대전 민화부분 특선상
		장호선	제3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
			제11회 현대미술 작은그림 축전 오원상
		전현숙	제3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
			제3회 전국 현대미술 작은그림 공모대전 특우상
		최희정	제15회 겸재미술오름전 우수상
	사진교실	박해숙	제21회 고양 전국사진촬영대회 은상
	한글서예	김태연	2023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동상
		전기옥	2023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장려상
	한문서예	박영옥	2023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대상
		정영미	2023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장려상

성북문화 11호.indb 102 2024-02-18 오전 10:0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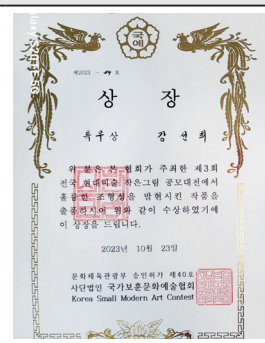
상장 및 수상 사진



대금 | 김희석 외 9인



경기민요 | 김계숙 외 6인



민화-전통채색 | 강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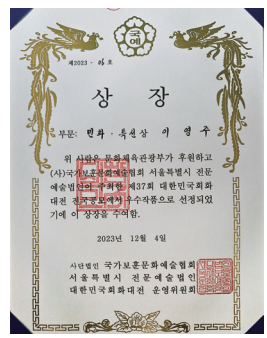
민화-전통채색 | 구희숙



민화-전통채색 | 길윤경



민화-전통채색 | 노경애



민화-전통채색 | 이영주



민화-전통채색 | 장호선



민화-전통채색 | 전현숙



민화-전통채색 | 최희정



사진교실 | 저길 보세요 | 박해숙







성북문화 11호.indb 103 2024-02-18 오전 10:07:58

2023년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2023년 가을 선선한 바람을 따라 성북천에 깃발이 남실거렸습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성북천 깃발전은 성북구민들의 작품을 깃발로 제작해 성북천변에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100년 뒤, 내가 생각하는 성북구'를 주제로 한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에 총 450점,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어 - 정지용'을 주제로 한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에 총 76점이 접수되었습니다. 뛰어난 작품들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24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총 140점이 깃발에 담겨 성북천을 수놓았습니다.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보여준 꿈나무들과 은은한 먹내음을 선사한 성북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14회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주제 : 100년 뒤, 내가 생각하는 성북구



성북구청장상
김민서 (광운초 5)
〈성북 사계절 스포츠 센터〉



성북구의회 의장상
김가온 (일신초 4)
〈우리가 키우는 나무 도시〉

성북문화 11호.indb 104 2024-02-18 오전 10:07:59



기동민 국회의원상
안현우 (장곡초 1)
〈미래와 과거가 만나는 도시 성북〉



김영배 국회의원상
명지원(이문초 2)
〈날으는 아파트〉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안소정 (석계초 4)
〈세계문화도시 성북〉



성북문화원장상
손준우 (석계초 1)
〈공룡이 사는 우리동네〉

성북문화 11호.indb 105 2024-02-18 오전 10:08:00



성북미술협회장상
이서현 (정덕초 3)
〈성북구 하늘공원〉



강남환경개발대표상
조하윤 (석계초 2)
〈성북하늘버스타고 여행해요〉



철한정화기업대표상
윤아민 (우촌초 2)
〈인공태양이 비추는 성북구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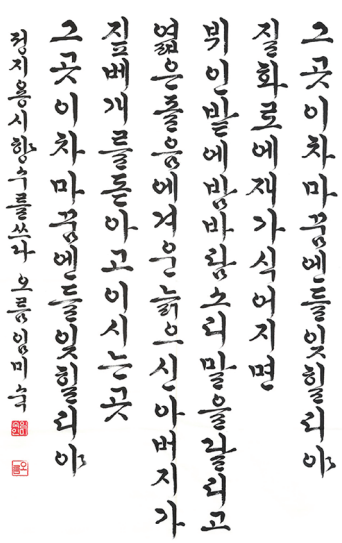
태한환경대표상
강은서 (일신초 2)
〈미래의 즐거운 학교생활〉

성북문화 11호.indb 106 2024-02-18 오전 10: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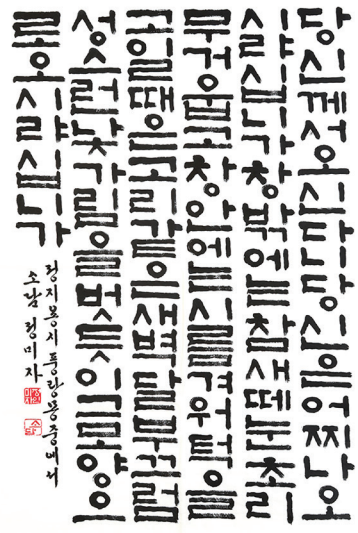
제14회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주제 :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어 - 정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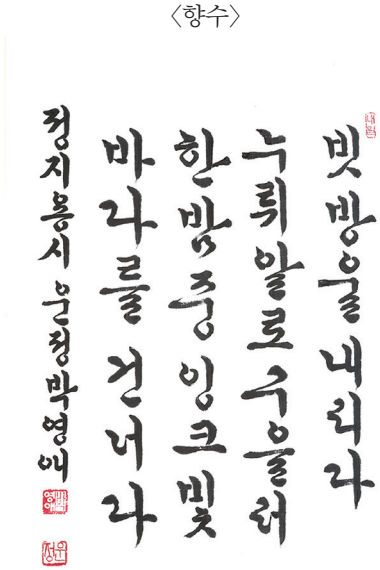
[한글서예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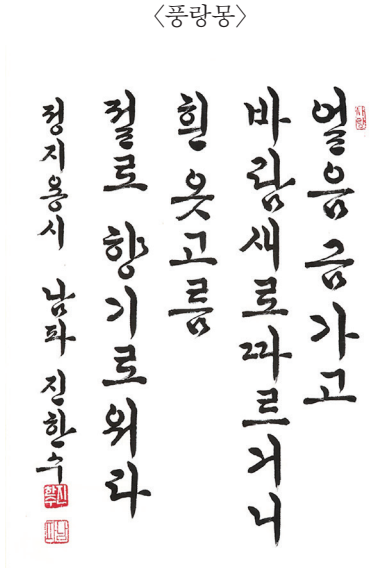
성북구청장상
임미숙
〈향수〉



성북구의회 의장상
정미자
〈풍랑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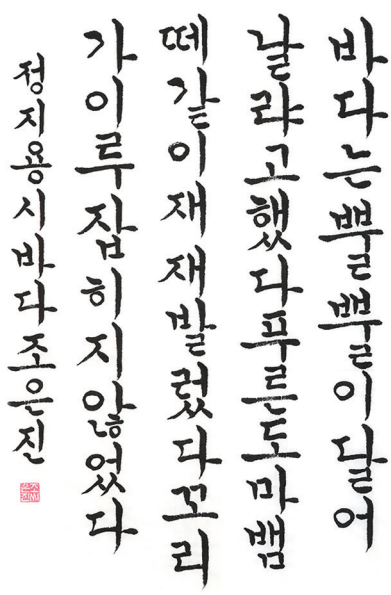


기동민 국회의원상
박영애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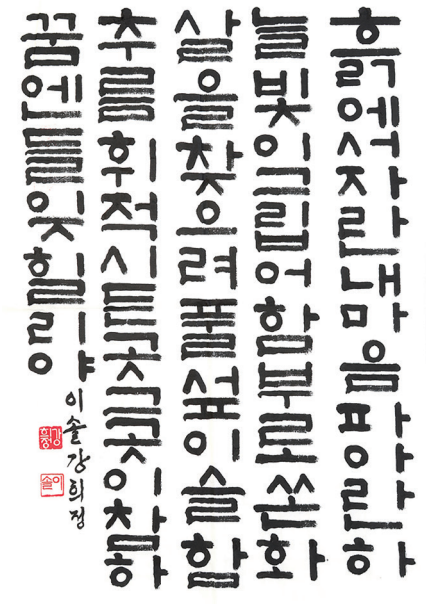


김영배 국회의원상
진한수
〈춘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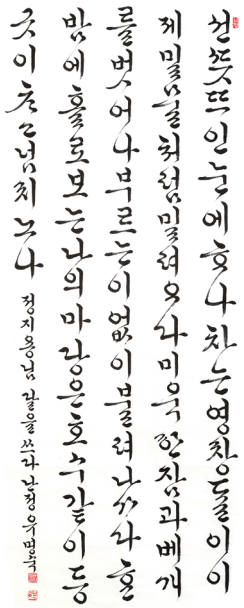
성북문화 11호.indb 107 2024-02-18 오전 10:08:01



성북문화원장상
조은진
〈바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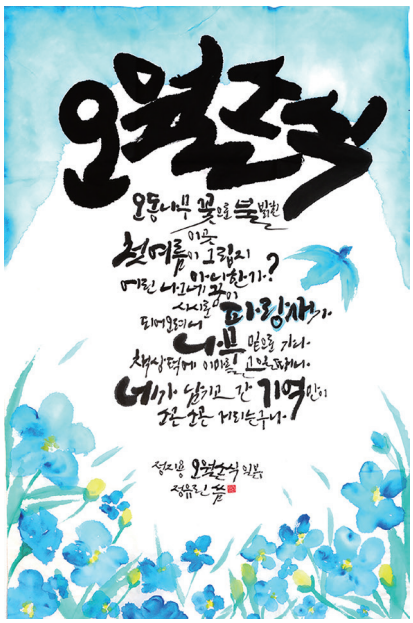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강희정
〈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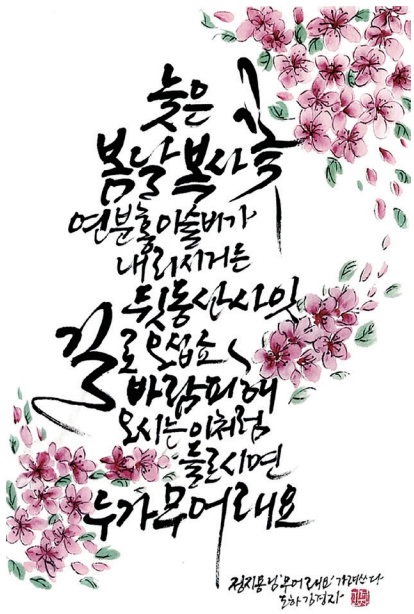
성북미술협회장상
유명숙
〈달〉

성북문화 11호.indb 108 2024-02-18 오전 10:0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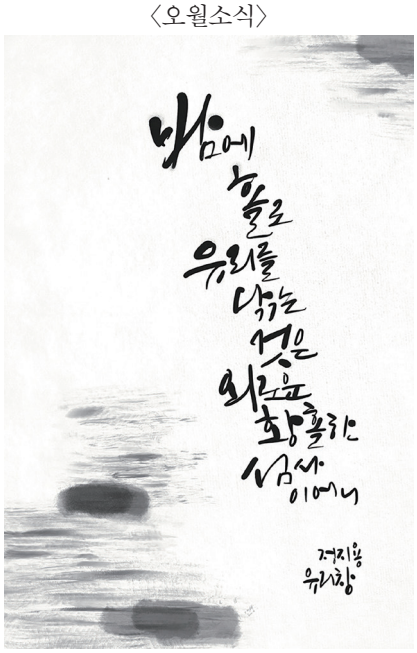
[캘리그래피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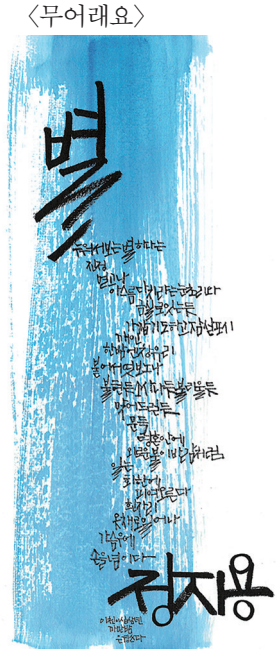
성북구청장상
정유린
〈오월소식〉



성북구의회 의장상
김경자
〈무어래요〉



기동민 국회의원상
설유진
〈유리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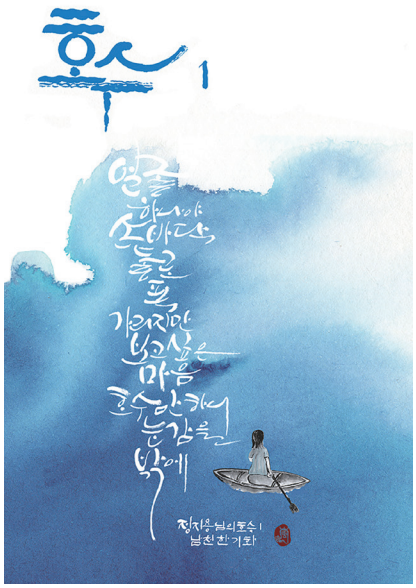


김영배 국회의원상
나은경
〈별〉

성북문화 11호.indb 109 2024-02-18 오전 10:08:03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김미숙
〈바람〉



성북문화원장상
한기화
〈호수1〉



성북미술협회장상
호순근
〈향수〉

성북문화 11호.indb 110 2024-02-18 오전 10:08:04

2023년 성북문화원 소식

사진으로 만나는 성북문화원의 2023년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의 역사 ·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과 함께 이룬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를 사진으로 기록해보았습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가치를 전달하는 성북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격려와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강좌



한국무용



한문서예



선소리 산타령



수묵산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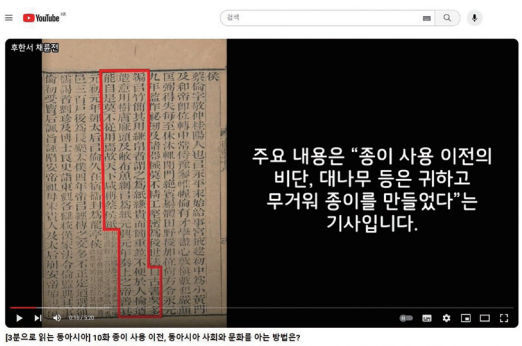
성북문화 11호.indb 111 2024-02-18 오전 10:08:06

지역 문화 계승사업





프리미엄 인문학 | 책으로 읽는 역사





프리미엄 인문학 | 3분으로 읽는 동아시아





성북문화 아카데미

성북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성북문화 11호.indb 112 2024-02-18 오전 10:08:09





성북구 주민기록단





성북구 민간기록물 공모전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

성북문화 11호.indb 113 2024-02-18 오전 10:08:13





제3회 성북마을기록 전시 | 서랍 속 학교이야기





일반회원 역사문화탐방 | 수원





성북 주민 아카데미 | 영화·드라마 속 역사 이야기

성북문화 11호.indb 114 2024-02-18 오전 10:08:18





제6회 성북학 학술회의 | 경계를 넘어 : 지역학의 교류와 성장

지역문화축제 및 문화행사





이육사 탄생 119주년 기념 문화제 | 푸른 하늘에 다을드시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79주기 추모 다례재

성북문화 11호.indb 115 2024-02-18 오전 10:08:23





만해 한용운 추모 창작뮤지컬《심우》





민세 안재홍 선생 동상 제막식





토크콘서트《아나키스트의 아내》

성북문화 11호.indb 116 2024-02-18 오전 10:08:26





성북천 깃발전





성북동 문화재 야행





제7회 서울 문화원 엑스포

성북문화 11호.indb 117 2024-02-18 오전 10: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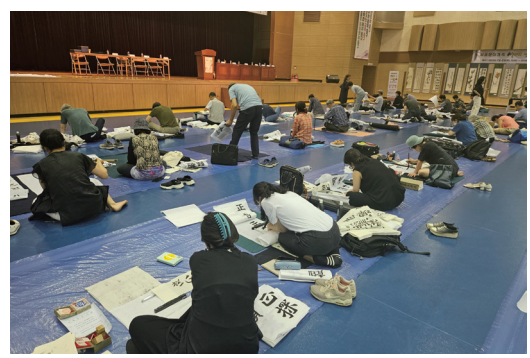
경연대회





서울문화가족 무용 및 국악 경연대회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업무협약



성북문화원·성신여자대학교 업무협약(2023.12.11.)



성북문화원·성북가족센터 업무협약(2023.12.29.)

성북문화 11호.indb 118 2024-02-18 오전 10:08:35

수상





지역문화발전유공 (서울특별시장표창) | 백외준 성북문화원 연구과장





지역문화발전유공 (성북구청장표창) | 민문기 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 팀장

기타



노후시설보수 및 정비(강의실 빔프로젝터 설치)



노후시설보수 및 정비(소강당 창고 공사)

성북문화 11호.indb 119 2024-02-18 오전 10:08:37

언론에 비친 성북문화원

아시아경제 구독

성북구, 축제 기억 성북마을아카이브에 담다

입력 2023.04.08. 오전 9:13 기사원문

박종일 기자

추천 댓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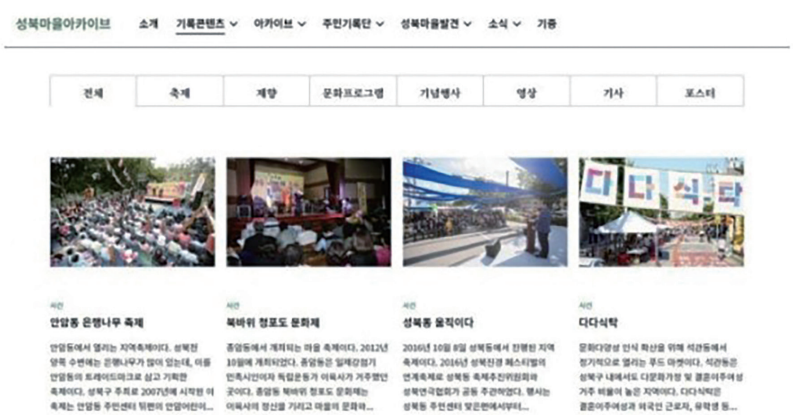
성북마을아카이브에 '활력의 장(場), 성북구와 축제' 공개

다양한 지역 축제 관련 기록물 수집, 자료화, 정리 공개▲ 월곡달빛축제 ▲ 장위부마축제 ▲ 석관동 의릉문화축제

▲ 성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 라틴아메리카 축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역 아카이브 누리집 '성북마을아카이브'에 '활력의 장(場), 성북구와 축제' 주제 기록물을 공개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성북구는 성북구·성북문화원이 협력해 '만해 한용운 주모다례재', '뮤지컬 심우', '선잠제' 등 다양한 행사와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가 지역 아카이브 누리집 '성북마을아카이브'에 '활력의 장(場), 성북구와 축제' 주제 기록물을 공개했다. 성북마을아카이브'에 공개한 '활력의 장(場), 성북구와 축제' 자료 화면

《아시아경제》, 2023.04.08.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2023.04.08	아시아경제	성북구, 축제 기억 성북마을아카이브에 담다
2	2023.04.09	아시아투데이	성북구, 축제의 기억을 성북마을아카이브에 담다

성북문화 11호.indb 120 2024-02-18 오전 10:08:37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9주년 기념 문화제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5.15 10:16 | 댓글 0



이육사탄생 기념문화제 포스터.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성북문화원(원장 김영일)과 함께 오는 18일 이육사 탄생 119주년 기념 문화제 '푸른 하늘에 다을드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2023.05.15.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	2023.05.15	전국매일신문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9주년 기념 문화제
4	2023.05.15	신아일보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9주년 기념 문화제 '푸른 하늘에 다을드시' 개최
5	2023.05.15	시민일보	성북문화원, 18일 이육사 탄생 119주년 기념 문화제 '푸른 하늘에 다을드시'
6	2023.05.18	뉴스메이커	성북구, 이육사 기념 문화제 '푸른 하늘에 다을드시' 열어

성북문화 11호.indb 121 2024-02-18 오전 10:08:37

HOME > 지역소식 > 인서울

성북구·성북문화원,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19 14:38:25



▲ 서울 성북구의 '제2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포스터. (사진=성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와 성북문화원이 오는 7월31일까지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서랍 속 학교 이야기'이며 2010년 이전 기록물 중 성북구 관내 학교의 역사와 주민의 학창 시절 이야기가 담긴 문헌, 시청각, 박물 등의 기록물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소풍 등 교내 행사 관련 기록물 ▲시험, 방학 생활, 학교 옛 모습 등 학교생활 관련 기록물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 주변 문구점, 서점, 분식집, 오래된 가게 등과 관련된 자료 등이다.

이외에도 성북구 내 학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자료라면 응모할 수 있다.

《시민일보》, 2023.06.19.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7	2023.06.19	시민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성북문화 11호.indb 122 2024-02-18 오전 10:08:38

서울경제 ⊕ 구독

성북구, 만해 한용운 뮤지컬 '심우' 공연

입력 2023.06.22. 오후 5:03 기사원문

김창영 기자

추천 댓글



자료제공=성북구

[서울경제]

서울 성북구가 성북문화원, 극단 더늠과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삶과 정신을 다룬 창작 뮤지컬 '심우'를 공연을 선보인다.

2014년 초연 이래 올해로 9주년을 맞은 뮤지컬 '심우'는 1937년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일승 김동삼 선생의 장례를 치른 이야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가의 치열한 삶과 고민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만해의 유택인 성북동 심우장에서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 3회 공연한다.

24일 오후 5시에는 '심우 예술제'가 열린다. 성북공감예술단이 1시간에 걸쳐 승무·판소리·가야금 연주 등 전통 예술 공연을 펼친다.

《서울경제》, 2023.06.22.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8	2023. 06. 22	아시아경제	한용운 심우장 뮤지컬 '심우' 공연
9	2023. 06. 22	신아일보	성북구 "한용운의 심우장서 뮤지컬 '심우' 감상하세요"
10	2023. 06. 22	시민일보	성북문화원 극단 더늠, 창작 뮤지컬 '심우' 공연 개최
11	2023. 06. 22	데일리한국	성북구, 한용운의 삶과 정신 그린 뮤지컬 '심우' 무료공연
12	2023. 06. 22	서울경제	성북구, 만해 한용운 뮤지컬 '심우' 공연
13	2023. 06. 23	문화일보	만해 한용운의 삶과 고민… 24~25일 성북동서 뮤지컬

성북문화 11호.indb 123 2024-02-18 오전 10:08:38

한국경제 구독중

성북구, 만해 한용운 입적 79주기 추모제 개최[메트로]

입력 2023.06.28. 오후 5:33 기사원문

이상은 기자

추천 댓글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79주기를 맞이해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6월 29일 오전 11시부터 만해 한용운의 고택 심우장(성북로 29길 24)에서 진행되는 '만해 한용운 선사 79주기 추모 다례재'는 성북문화원(원장 김영일),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지광 스님), 정법사(주지 법진 스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성북구청과 국가보훈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가 후원한다.

《한국경제》, 2023.06.28.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4	2023. 06. 28	아시아경제	만해 한용운 79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15	2023. 06. 28	전국매일신문	성북구, 만해 한용운추모 다례재 내일 개최
16	2023. 06. 28	시민일보	성북구,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79주기 맞이 추모행사 개최
17	2023. 06. 28	데일리한국	성북구, 만해 한용운 79주기 추모 다례재 개최
18	2023. 06. 28	한국경제	성북구, 만해 한용운 입적 79주기 추모제 개최[메트로]

성북문화 11호.indb 124 2024-02-18 오전 10:08:38

아시아경제 구독

성북구, 전시해설 전문봉사자 배출

입력2023.07.06. 오후 4:41 기사원문

박종일 기자

1 댓글

가

성북구, 전시해설 전문봉사자 배출

5일 전시해설 전문봉사자 양성 교육 21명 수료

이육사의 삶과 문학부터 문화공간 이육사 소개까지 '이육사 전문가' 양성

문화공간 이육사에서 전시해설 전문 봉사활동 진행 예정



성북구(구정장 이승로)가 5일 문화공간 이육사(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에서 전시해설 전문봉사자 양성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전시해설 전문봉사자 양성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2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성북문화원, 문화공간 이육사와 협력해 진행한 교육은 6월부터 총 4회차 ▲문화공간 이육사 소개 ▲이육사의 삶과 문학 ▲전시해설 기초 ▲전시해설 실습으로,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수료한 전시해설 전문봉사자는 문화공간 이육사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풍부한 전시해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자 최00(49)는 "정코도 시인으로만 알았던 이육사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공간 이육사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전시해설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23.07.06.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9	2023.07.06	아시아경제	성북구, 전시해설 전문봉사자 배출

성북문화 11호.indb 125 2024-02-18 오전 10:08:38

‘심우장 만해평화문화축전’ 열린다

문화 | 입력 2023.08.18 17:22 | 호수 3783

김선두 기자 sdkim25@ibulgyo.com

가

만해사상실천연합, 8월 2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 일원에서

‘심우장과 만해 한용운’ 주제로
학술세미나, 문학의 향연 펼쳐

만해 한용운스님 탄신 144주년을 기념하는 제8회 심우장 만해평화문학축전이 8월2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우천시 숭인동 낙산 묘각사 낙가선원)에서 ‘심우장과 만해 한용운’을 주제로 다채롭게 열린다. 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연합(이사장 홍파스님, 관음종 종정)은 최근, 8월29일 오후 2시 만해스님 탄신 144주년 다례재 및 기념식을 시작으로, ‘심우장과 만해 학술세미나’, ‘심우장과 만해문학의 향연’ 등 3부에 걸쳐 진행되는 축전일정을 발표했다.

제1부 다례재 및 기념식은 성북구립 여성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만해스님 행장소개, 만해기념시 낭송(‘님의 침묵’, 태종호, 시인), 환영사(이승로 성북구청장), 대회장 법문(홍파스님), 김용재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과 문선배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등 각계 인사의 축사가 진행된다.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스님이 ‘만해찬시’를 낭송하고,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이 ‘남북한 국민에게 보내는 평화 메시지’를 낭독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문인협회, 대한불교청년회, 동국대불교학과동문회, 불교인권위원회, 성북문화원, 만해연합대전지부가 참여하며 서울 성북구청과 (재)대한불교진흥원, 동국대학교총동창회. 국제PEN한국본부,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여래종이 후원한다.

《불교신문》, 2023.08.18.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0	2023. 08. 18	불교신문	‘심우장 만해평화문화축전’ 열린다

성북문화 11호.indb 126 2024-02-18 오전 10:08:39

아시아경제 구독

‘아나키스트의 아내’…독립운동가 이은숙·이회영 추모의 시간

입력2023.09.11. 오후 7:07 · 수정2023.09.11. 오후 7:08 기사원문

박균일 기자

추천 댓글

성북구, 13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이은숙과 이회영의 삶 노래와 토크콘서트로 추모하는 자리- 창작 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독립운동가 이은숙, 이회영의 삶을 추모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다.

성북문화원(원장 김영일)과 극단 더늠(대표 자지성)이 주관, 국가보훈처가 후원으로 9월 13일 오후 4시 성북천 분수광장(한성대입구역 2번출구)에서 토크콘서트 '아나키스트의 아내'가 열린다.

《아시아경제》, 2023.09.11.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1	2023.09.11	아시아경제	‘아나키스트의 아내’…독립운동가 이은숙·이회영 추모의 시간
22	2023.09.11	뉴스메이커	성북구, 독립운동가 이은숙·이회영 추모 토크콘서트 ‘아나키스트의 아내’ 13일 열려

성북문화 11호.indb 127 2024-02-18 오전 10:08:39

서울신문 구독

문화가 흐르는 성북동의 밤… 22~23일 '성북동문화재야행'

입력 2023.09.19. 오후 3:53 기사원문

조회선 기자

추천 댓글

| 문화재·문화시설 야간 관람… 공연·아트 마켓도 열려



서울 성북구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원이 주관하는 '성북동문화재야행'이 22~23일 오후 6~10시 성북동 일대에서 펼쳐진다.

《서울신문》, 2023.09.19.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3	2023. 09. 19	아시아경제	지붕없는 박물관 진경 볼 '2023 성북동문화재야행' 개최
24	2023. 09. 19	서울신문	문화가 흐르는 성북동의 밤… 22~23일 '성북동문화재야행'
25	2023. 09. 19	이투데이	성북구 "지붕 없는 박물관 '문화재 야행'에 초대합니다"
26	2023. 09. 21	트래블투데이	성북구,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일대에서 '2023 성북동문화재야행 개최'

성북문화 11호.indb 128 2024-02-18 오전 10:08:39

아시아경제 구독

성북구, 제6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지역학의 교류와 성장

입력 2023.10.11. 오후 10:02 · 수정 2023.10.11. 오후 10:03 기사원문

박준일 기자

추천 댓글

가

성북문화원·한성대 주관, 교토부립대 협력 지역학 주제로 한 국내외 지역학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 마련… 성북 지역에 대한 연구 및 학술 활동 의미 파악, 현대에 지역학 지닌 의의 고찰 기회



《아시아경제》, 2023.10.11.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7	2023. 10. 11	아시아경제	성북구, 제6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지역학의 교류와 성장
28	2023. 10. 12	전국매일신문	제6회 성북학 학술회의 내일 개최
29	2023. 10. 16	스마트경제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제6회 성북학 학술대회 개최
30	2023. 10. 16	베리타스알파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성북학 학술대회' 개최
31	2023. 10. 16	교수신문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제6회 성북학 학술대회 개최
32	2023. 10. 16	뉴시스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제6회 성북학 학술대회 개최
33	2023. 10. 16	브릿지경제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제6회 성북학 학술대회 개최

성북문화 11호.indb 129 2024-02-18 오전 10:08:39

아시아경제 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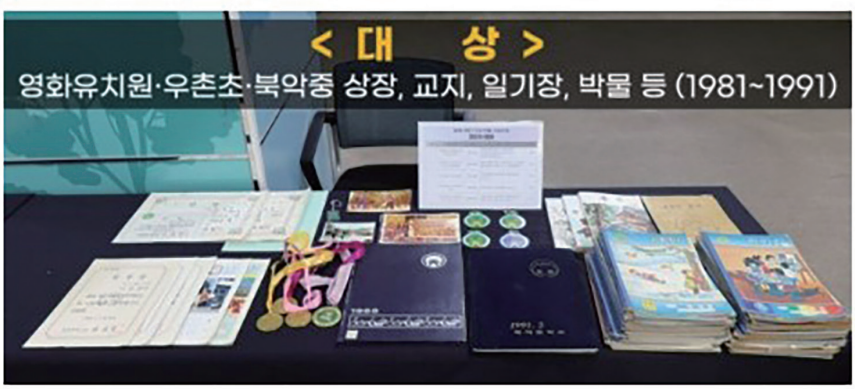
1980~90년대 정릉동 영화유치원·우촌초등학교·북악중 사진, 상장 대상

입력 2023.10.19. 오전 7:45 · 수정 2023.10.19. 오전 7:46 기사원문

박준일 기자

수천 댓글

성북구·성북문화원,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상 남명희 씨… '서랍 속 학교 이야기' 주제 6~8월 191건, 694점 민간기록물 접수, 총 15명 선정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와 성북문화원(원장 김영일)이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남명희 씨 등 15명의 추억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이 되었다.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은 성북구 내 학교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물을 발굴하기 위해 '서랍 속 학교 이야기'를 주제로 지난 6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했다. 191건, 694점의 민간기록물이 접수되었으며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대상 남명희 씨를 비롯해 총 15명을 선정했다.

대상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정릉동 영화유치원·우촌초등학교·북악중학교 재학시절의 사진, 상장, 메달, 교지, 학급 임원 견장, 일기 등을 포함한 기록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 학교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물건들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사례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경제》, 2023.10.19.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4	2023. 10. 19	아시아경제	1980~90년대 정릉동 영화유치원·우촌초등학교·북악중 사진, 상장 대상
35	2023. 10. 20	서울신문	개인 추억이 지역 문화 자원으로… 작은 것도 소중한 성북

성북문화 11호.indb 130 2024-02-18 오전 10:08:39

문화일보 구독

성북구, 9일까지 성북미디어문화마루서 '성북 마을기록 전시' 개최

입력 2023.11.01. 오후 3:10 기사원문

이정민 기자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성북 마을기록 전시'에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성북구청 제공

서울 성북구는 1970년대 초등학교 졸업앨범·일기장, 1980년대 수험표, 1990년대 어머니학교 글 등 지역 문화 자원이 된 개인의 추억을 다룬 '제3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를 9일까지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성북문화원과 함께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1층에 전시장을 마련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번 전시는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출품작과 성북문화원이 수집한 기록물 등 200여 점을 '서랍 속 학교 이야기'를 주제로 구성했다.

주요 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인 △1970년대 성북초등학교 졸업앨범 등 문서·사진·박물류 △1980년대 우촌초등학교 교지 △1980년대 경동고등학교 수험표 및 견장 △1990년대 월곡동 어머니학교 글 모음집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관련 기록물들이다.

《문화일보》, 2023.11.01.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6	2023.11.01	신아일보	성북구 문화 자원 된 "구민 추억을 전시합니다"
37	2023.11.01	뉴스메이커	성북구, '성북 마을기록 전시' 9일까지
38	2023.11.01	문화일보	성북구, 9일까지 성북미디어문화마루서 '성북 마을기록 전시' 개최
39	2023.11.01	시민일보	성북구, '서랍 속 학교 이야기' 9일까지 전시
40	2023.11.02	한겨레	성북구, 9일까지 '제3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열어

성북문화 11호.indb 131 2024-02-18 오전 10:08:40

"성북문화원·성신여대 공동 연구 위해 손잡아"

2023.12.12



【 앵커멘트 】
성북문화원과 성신여자대학교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역사·문화 연구 활동에 협업을 약속했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VCR 】
한용운 선생의 심우장부터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 중인 간송미술관까지.

성북구는 말 그대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립니다.

향토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일을 담당하는 성북문화원.

27년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 온 성북문화원이 올해가 가기 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tv》, 2023.12.12.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1	2023. 12. 12	딜라이브tv	"성북문화원·성신여대 공동 연구 위해 손잡아"
42	2023. 12. 12	뉴스1	성신여대, 성북문화원과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발 업무 협약 체결
43	2023. 12. 12	한국대학신문	성신여대, 성북문화원과 업무 협약 체결
44	2023. 12. 12	이데일리	성신여대, 성북문화원과 '문화예술사업' 업무협약
45	2023. 12. 12	대학저널	성신여대, 성북문화원과 업무협약
46	2023. 12. 12	천지일보	성신여대, 성북문화원과 업무협약 체결
47	2023. 12. 12	디지털타임스	성신여대, 성북문화원과 업무 협약(MOU) 체결
48	2023. 12. 12	베리타스알파	성신여대 성북문화원과 업무 협약(MOU) 체결
49	2023. 12. 12	스마트경제	성신여대, 성북문화원과 업무협약 체결
50	2023. 12. 12	교수신문	성신여대, 성북문화원과 업무 협약(MOU) 체결
51	2023. 12. 12	서울경제	성신여대, 성북문화원과 '역사·문화·예술사업' 업무협약 체결
52	2023. 12. 12	매일일보	성신여대, 성북문화원과 인적·물적 교류 업무협약 체결

성북문화 11호.indb 132 2024-02-18 오전 10:08:40

2023년도 성북문화원 임원 명단

원장		
	김영일	㈜태명실업 회장
이사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장윤규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
	천미전	우리옛돌박물관 관장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공상구	마이아트 옥션 대표
	백병수	자일자동차㈜ 대표이사
	이승철	가수
	이영기	법무법인 LKB & Partners 대표변호사
	최종명	최종명세무사사무소 대표
	구원경	에스코 홀딩스 시니어매니저
(당연직)	한재헌	성북구청 행정문화국장
감사		
	정호섭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최한진	다율회계법인 부대표

성북문화 11호.indb 133 2024-02-18 오전 10:08:40

운영위원

계영선	영라인의원 원장
강석원	前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장
이홍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수석연구관
정하경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한민석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유형균	철한정화기업 전무이사
이병곤	서울 운현궁 관리운영본부장
황장훈	세무법인 혜윰 하남미사지점 대표 세무사

고문

김희진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상임이사
마상곤	협운해운㈜ 회장
박태호	원제한의원 원장
박병호	前 서울시문화관광해설사
이병무	㈜아세아시멘트 회장
이윤재	㈜피죤 회장
이의순	㈜세방그룹 회장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 리더무역 CEO회장
정승소	㈜동승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허남각	삼영통상㈜ 회장

역대원장

1대	故 구두회	前 ㈜에스코 회장
2대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
3대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성북문화 11호.indb 134 2024-02-18 오전 10:08:40

2023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

강희정, 권기중, 김명진 김석중, 김선태, 김연화, 김용준, 김유영, 김은화, 김장현, 김준용, 김준현, 김지은, 김진흠, 김한상, 남기현, 남윤면, 문일웅, 민은영, 민지영, 박동명, 박상찬, 박창희, 배경식, 배기석, 서준석, 송양섭, 신상용, 신용복, 오근창, 위가야, 유현희, 이건자, 이상훈, 이승호, 이응선, 이재석, 이정빈, 이주원, 이주헌, 이준성, 이중민, 이현주, 임석규, 전원호, 정병기, 정 영, 조규태, 주연경, 최성규, 최성찬, 최우석, 최정순, 최호진, 표민수, 한민석, 홍선희, 황장훈, 황재호

기관·단체

㈜삼신엠앤티, 주식회사 피사일삼, 철한정화기업㈜

성북문화원을 후원한 가게들



영라인의원 (서울 성북구 성북로6길 4)



고기 굽는 마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이강희 곰탕(서울 성북구 성북로5길 6)



구포국수 (서울 성북구 성북로19-1 2층)



데자르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30 2층)

성북문화 11호.indb 135 2024-02-18 오전 10:08:43

후원은 나와 문화를 키우는 또 하나의 참여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북문화원은 성북을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의 문화기관으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 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기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 성북구민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여, 우리지역의 동질의식과 소속감을 고양하여 지역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성북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종류

- **후원금**
  성북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후원하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문화복지사업에 지원합니다.

- **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확대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 **일반후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고 성북문화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2-640253)

- **정기후원**
  다음 쪽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북문화 11호.indb 136 2024-02-18 오전 10:08:43

성북문화원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 름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정기 후원(CMS)

금 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예금주명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CMS를 통해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후원

현금 후원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방문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802-640253　예금주 : 성북문화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원금 자동이체 CMS,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수집 · 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시까지(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발급 시기까지) 이용 · 보유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 · 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성북문화원에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2024년　　월　　일

후원인 :　　(서명/인)

성북문화원장 귀하

성북문화 11호.indb 137　　2024-02-18 오전 10:08:43

성북문화 11호.indb 138 2024-02-18 오전 10:08:43